SEOUL MY SOUL
서울마이소울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발 간 등 록 번 호
51-6110000-003352-10

사업보고서

2025년 서울기록화 사업

2025.11.

서울기록원
SEOUL METROPOLITAN ARCHIVES

결 과 보 고 서

사 업 명	2025년 서울기록화 사업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서울기록원

2025년 11월

투에이 주식회사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2025년 서울기록화 사업」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5년 11월

수 행 사	투에이 주식회사
사 업 책 임 자	김대건 (투에이 주식회사 대표)
참 여 연 구 원	이종욱 (투에이 주식회사 대리, PM)
	류지수 (투에이 주식회사 대리)
	박종찬 (투에이 주식회사 대리)
	이은동 (투에이 주식회사 과장)
	강희영 (투에이 주식회사 대리)
	박현제 (투에이 주식회사 이사)
	정지연 (투에이 주식회사 대리)
	홍철민 (투에이 주식회사 팀장)
	허영균 (투에이 주식회사 팀장)

서울기록원
SEOUL METROPOLITAN ARCHIVES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및 수행전략 ····· 1
가. 사업 목적 ····· 1
나. 수행전략 ····· 2
2. 사업 수행 방법 ····· 4
가. 세부 내용 ····· 4
3. 사업 수행 주요 내용 ····· 6
가. 서울기록 수집 및 정리 ····· 6
나. 대시민 서비스용 수집기록 콘텐츠 기획·제작 ····· 8
다. <2025년 서울기록페어> 개최 ····· 9
4. 조직 및 수행 일정 ····· 10
가. 조직구성 ····· 10
나. 수행 일정 ····· 11

Ⅱ. 사업 내용

1. 서울기록 수집 및 정리 ····· 12
가. 수집주제 선정 및 계획 수립 ····· 12
나. 서울기록 수집 : 청계천 ····· 16
다. 서울기록 수집 : 서울의 생태하천 ····· 23
라. 시민 참여형 기록물 수집 프로그램 지원 ····· 30
마. 수집기록 목록화 및 정리 ····· 31
바. 서울기록원 수집체계 보완 ····· 33
사. 서사형 아카이브 ····· 34
2. 대시민 서비스용 수집기록 콘텐츠 기획·제작 ····· 36
가.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영상 촬영 및 제작 ····· 36
나. 서울기록원 누리집 서비스용 콘텐츠 기획·편집 ····· 40
3. <2025년 서울기록페어> 개최 ····· 45
가. 개요 ····· 45
나. 홍보 ····· 46
다. 서울기록페어 전체 프로그램 ····· 49
라. 기념품 제작 및 배포 ····· 59
마. <2025 서울기록페어> 성과 ····· 60

Ⅲ.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1. 『2025년 서울기록화 사업』 성과 ····· 64
2. 향후 서울기록화 추진방향 ····· 66

표 차 례

<표 1> <2025년 서울기록페어> 기획 및 운영방안 ····· 9
<표 2> 주제별·유형별 수집기록물 현황 ····· 15
<표 3> 지정주제 ‘청계천’ 면담 주요 내용 ····· 19
<표 4> 자율주제 ‘서울의 생태하천’ 면담 주요 내용 ····· 25
<표 5> 수집기록물 색인 항목 ····· 31
<표 6>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개요 ····· 37
<표 7> 누리집 콘텐츠 및 뉴스레터 개요 ····· 41
<표 8> <2025년 서울기록페어> 홍보물 제작 목록 ····· 47
<표 9> <2025년 서울기록페어> 홍보물 설치 위치 및 사진 ····· 47
<표 10> <2025년 서울기록페어> 전체 프로그램 목록 ····· 49
<표 11> 강연프로그램 <시민기록, 실천이 만든 가치> 일정표 ····· 53
<표 12> <2025년 서울기록페어> 기념품 ····· 59

그 림 차 례

<그림 1> 사업 조직 구성도 ····· 10
<그림 2> 사업 수행 일정 ····· 11
<그림 3> S-NAP 기반 수집실행 프로세스 ····· 13
<그림 4> 서울기록 수집실행 프로세스 ····· 15
<그림 5> 리드·케이스파일(이OO) ····· 17
<그림 6> 기록물 수집실행계획서(구가도시건축(좌), 최OO(우)) ····· 18
<그림 7> '임OO' 수집기록물 예시 ····· 21
<그림 8> '최OO' 수집기록물 예시 ····· 22
<그림 9> '박OO' 수집기록물 예시 ····· 22
<그림 10> 리드·케이스파일(네이처링) ····· 24
<그림 11> 기록물 수집실행계획서(북부환경정의 중랑천사람들(좌), 강OO(우)) ····· 24
<그림 12> '강OO' 수집기록물 예시 ····· 27
<그림 13> '마을언덕사회적협동조합' 수집기록물 예시 ····· 28
<그림 14> '생활환경실천단' 수집기록물 예시 ····· 28
<그림 15> '북부환경정의 중랑천사람들' 수집기록물 예시 ····· 29
<그림 16>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수집기록물 예시 ····· 29
<그림 17> '2025년 기록활동가 양성과정 심화반' 수집기록물 예시 ····· 31
<그림 18> 서사형 아카이브 예시 ····· 35
<그림 19> 서울을 기록하는 사람들 '청계천' 다큐멘터리 ····· 39
<그림 20> 누리집 콘텐츠 및 뉴스레터 제작 예시 ····· 44
<그림 21> <2025년 서울기록페어> 초대장 ····· 46
<그림 22> 기록활동가 공간 <청계천과 생태하천을 기록하는 사람들> 설치 사진 ····· 50
<그림 23> 기록활동가 공간 구성 - 소개글 ····· 50
<그림 24> 기록활동가 공간 구성 - 기록활동가 사진 ····· 51
<그림 25> 기록활동가 공간 구성 - 수집 기록물 ····· 51
<그림 26> 기록활동가 공간 구성 - 아카이빙 북·기록서 전시 ····· 52
<그림 27> 북큐레이션 <읽는 물결> 사진 ····· 52
<그림 28> 김하나(시민기록네트워크) 강연 사진 ····· 54
<그림 29> 기록활동가 양성과정 심화반(청계천의 다방(좌), 청계천 육의전(우)) ····· 54
<그림 30> 박은선(리슨투더시티) 강연 사진 ····· 55
<그림 31> 강대호(칼럼니스트) 강연 사진 ····· 55
<그림 32> 기록활동가 교육 <시민 아키비스트 툴킷> 진행 사진 ····· 56

<그림 33> 어린이 교육 <홍제천 기록탐정단> 진행 사진 ····· 56
<그림 34> 가족 교육 <2025 우리 가족 타임캡슐> 진행 사진 ····· 57
<그림 35> 어린이 교육 <꼬불꼬불 기록 탐험> 진행 사진 ····· 57
<그림 36> 어린이 교육 <기록 미션 탐험대> 진행 사진 ····· 58

Ⅰ.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및 수행전략

2. 사업 수행 방법

3. 사업 수행 주요 내용

4. 조직 및 수행 일정

1 사업 목적 및 수행 전략

가. 사업 목적

1) 서울 관련 시민기록과 기록활동을 수집하여 서울 역사와 시민의 삶을 기록화

- 서울기록원의 기록 수집 정책은 공공기관 행정 기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를 지침으로 삼아 서울을 구상하는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여 기록화하기에는 한계 존재
- 서울 서사형 기록화 지침(Seoul-Narrative Archiving Policy, 이하 'S-NAP')을 통해 서울에서 활동하고 또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삶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조명
- S-NAP은 대표성과 상징성을 지닌 인물, 시간, 장소, 현상 등을 서사와 연결하여 맥락을 드러내고 삶의 구성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다원적이고 총체적 기록화를 통한 서울의 재현이 목적

2) <2025년 서울기록페어>를 개최하여 서울의 기록문화 확산 촉진

- 서울기록원을 대표하는 기록문화행사 <서울기록페어> 2일간 개최
- 기록전문가 및 시민기록활동가의 사례를 공유하는 강연프로그램, 어린이·가족 대상 교육프로그램, 전시 등 기록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록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기록문화 프로그램 제공
- 서울기록화 사업의 수집주제와 관련하여 시민기록활동가의 기록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민간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기록활동가의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기회 제공 및 기록 활동에 대한 접근 가능성 개방
- 이전 <서울기록페어> 중 서울기록 네트워크의 기록활동을 전시한 적이 있으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평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2025년 서울기록페어>에서 서울기록 네트워크를 소개하는 전시로 방향성을 전환
- <서울기록페어>에서 2일차 프로그램으로 어린이·가족 대상 교육프로

그램을 주로 진행했으나, 시민기록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신설 요청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서울기록 네트워크와 시민기록활동가를 대상으로 디지털 아카이브 실습을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 진행

3) 다양한 수집기록 콘텐츠 제공을 통해 시민의 기록 활동 접근성 향상

- 인물, 사건, 장소, 현상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기록하기 위하여 다큐멘터리 아카이빙 방법론을 활용 및 물리적 수집의 한계 보완 추진
- 수집 주제와 관련된 서울기록 네트워크와 인터뷰를 진행하여 수집기록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누리집 콘텐츠 제작
- 인터뷰를 통해 기록물의 생산 맥락과 서사, 서울의 다양한 모습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기록 가능
- 수집이 어려운 무형의 경험과 기억을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뉴스레터, 인터뷰 기사 등 다양한 유형으로 콘텐츠화함으로써 사라지기 쉬운 서울 내 문화를 영구히 기록화하여 문화유산 보전에 기여
-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 제작을 통해 시민들에게 친숙하고 다채로운 기록문화 제공 용이 및 기록 활동 접근성 향상

나. 수행전략

1) S-NAP 기반의 체계적이고 다양한 유형의 기록 수집 진행

- S-NAP을 기반으로 하여 수립한 수집 전략과 기록 수집의 수행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구조 생성
- 수집 전략
  - 구술 및 인터뷰 진행을 통해 서울기록의 생산 맥락 파악
  - 구술 및 인터뷰 확보를 통해 물리적 기록 수집 시 기록물 정확성 향상
  - 기록 대상에 따라 다큐멘터리, 뉴스레터 등 유형을 다양화하여 대상의 서사에 적합한 형태로 콘텐츠 제작
  -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수집 실습 및 <2025년 서울기록페어>를 통한 경험 발표 공유의 기회 제공

2) 콘텐츠 제작 유형에 따른 전문가 조직 구성

- 다큐멘터리, 뉴스레터 등 콘텐츠 제작 전문가, 출판 전문가 조직으로 구성
- 기록관리 사업을 경험한 전문인력 투입

2 사업 수행 방법

가. 세부 내용

1) S-NAP을 기반으로 한 서울기록 수집 활동 전개

- 지난 2019년「서울기록 수집 및 기록콘텐츠 개발 사업」에서 개발된 S-NAP은 현실 세계에 대한 문화적 표상으로서의 상징체계를 수집 전략과 기록 방법론을 적용하여 구현한 지침
- 선별적인 수집을 위한 가치 판단에 있어서 기능과 계층적 분류에 기반했던 전통적 관점을 넘어 다원적이면서 다층적인 수집 전략을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형성했다는 평가
- 2019년 개발 이후 S-NAP은 2020~2024년「서울기록화 사업」에서 수집 활동의 원칙과 지침 제공

2)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일관된 전략 수립 및 실행

- '서울기록화 사업'은 서울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기록화하여 도시의 총체적인 역사와 다양성을 영구 보존하는 것이 중요
- 서울기록 수집 과업은 '서울기록화 사업'의 핵심 과업이며,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맞이하여 지정주제로 '청계천'을, 지정주제를 보완하고 연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의 생태하천'을 2025년 서울기록화 사업의 수집주제로 선정
- 선정된 지정주제와 자율주제는 서울기록 수집 과업뿐만 아니라 서울기록원 누리집 서비스용 콘텐츠 제작 및 <2025년 서울기록페어> 개최 등 모든 과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서울기록화 사업의 과업이 유기적이고 상호 연관되도록 구성
- 해당 주제를 통해 수집한 서울기록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2025년 서울기록페어>에서 디지털 아카이브 실습을 교육하는 프로그램 진행
- 서울기록화 사업의 모든 과업이 핵심 과업인 서울기록 수집의 수집주제 및 과업의 수행 목표를 공유하게 되어 활동을 상부상조하고 사업의 일관된 방향성을 유지하며 사업 수행 가능

3) 과업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수행조직

- 과업을 진행하며 면담, 다큐멘터리 영상, 누리집 콘텐츠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자체적인 전략적 방법론을 개발, 실제 과업 수행에 적용함으로써 해당 과업의 특성에 최적화된 활동 수행 가능
- 특화된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사업의 품질과 완성도 향상 지향
- 분야별 전문가 협업을 통해 서울기록 수집과 누리집 콘텐츠의 제작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등 각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전체적인 사업 목표 달성에 기여

3 사업 수행 주요 내용

가. 서울기록 수집 및 정리

1) 수집주제 선정 및 계획 수립

-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맞이하여 청계천 변천과정, 청계천 사람들 등 지정주제 ‘청계천’의 기록화 대상 선정
- 지정주제 ‘청계천’과 연계하여 상호보완할 수 있고 서울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자율주제로 ‘서울의 생태하천’ 결정
  - ‘서울의 생태하천’을 중심으로 생태하천의 변천과정에서 함께 변화하는 시민들의 생활 모습, 문화 등 기록화 대상 선정

2) 서울기록 수집

- S-NAP을 기반으로 서울 대상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록화 수행
  - S-NAP에 기반하여 수집주제를 선정하고 수집 활동 진행
  - 수집주제 선정 시 각 주제별 연구 후 수집주제 선정 보고서 작성
  - 원본수집, 사본수집, 생산수집 등 효과적인 수집을 위한 다양한 방법 적용
  - 수집 활동의 과정과 산출물을 절차에 따라 수행·생산하여 다른 과업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효과적인 수집 활동 전개
- 금년 수집주제는 지정주제인 ‘청계천’과 자율주제인 ‘서울의 생태하천’으로 선정
  - ‘청계천’은 복원 20주년을 맞아, 서울의 도시 환경 변화와 시민 생활상을 함께 보여주는 대표적인 공간으로, 복원 전후의 모습과 그 속에서 살아온 시민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주요 수집 주제
  - ‘서울의 생태하천’은 청계천 복원 사업을 시작으로 서울 전역에서 진행된 생태하천 조성 사업을 통해 생태하천과 함께 변화하는 서울 시민의 생활 모습을 아카이빙 할 수 있는 주요 수집 주제
- 금년 사업에서는 총 8개의 수집 리드에서 기록물 총 1,632건 수집하였으며, 서울기록원 기록활동가 양성과정 심화반 참여자들이 121점을 수집하여, 도합 1,753점의 기록물 수집
  - 지정주제 ‘청계천’
    - 박OO: 2건(비전자기록물)

· 임OO: 178건(전자파일)
· 최OO: 183건(전자파일)
· 서울기록원 기록활동가 양성과정: 121점(전자파일)

- 자율주제 '서울의 생태하천'
  · 강OO: 294건(전자파일)
  · 마을언덕사회적협동조합: 50건(전자파일)
  · 북부환경정의 중랑천사람들: 4건(전자파일)
  ·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6건(전자파일)
  · 생활환경실천단: 915건(전자파일, 비전자기록물)

- 수집기록은 수집 당시의 원질서를 존중하되 보존관리에 적합하도록 활동 맥락도 고려
  - 비전자기록물(181건)은 대여 후 디지털화 진행

3) 수집기록 목록화 및 정리

- 수집된 시민기록을 출처, 서사 키워드, 원본파일명, 생산일, 수집유형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검색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목록화
- 서사형 아카이브를 통해 수집기록물과 수집리드와의 맥락 연결

4) 서울기록원 수집체계 보완

- 서울 서사형 기록화 지침(S-NAP) 현행화 및 고도화방안 마련
  - 2024년 서울기록화 사업을 통해 '2020년 S-NAP'을 적용하여 2019~2023년 기수집기록물 목록 정비
  - 2024년 서울기록화 사업을 통해 개선된 S-NAP이 '2020년 S-NAP'을 적용한 2019~2024년 기수집기록물에 적용되어 2019~2024년 기수집기록물 목록 및 2025년 수집기록물 목록에 2024년 S-NAP을 적용하여 현행화 진행
  - 수집기록물 목록에 통일된 S-NAP을 적용하여 일관된 규격을 통해 향후 SDA 시스템 업로드 및 서비스 제공 가능
- 서울기록원 기록수집 매뉴얼 수정·보완
  - 기록수집사례를 반영하여 시민기록 수집 기준 및 절차 명확화
  - 시민기록 수집 시 접수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FAQ로 정리하여,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일관적인 태도로 시민기록 수집을 진행할 수 있도록 체계 정비

나. 대시민 서비스용 수집기록 콘텐츠 기획 · 제작

1)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영상 촬영 및 제작

- S-NAP에 기반하여 선정된 수집주제를 바탕으로 다큐멘터리를 기획·촬영하여 물리적 시민기록 수집의 한계를 영상기록으로 보완
- 기록학 전문가와 다큐멘터리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기록학적 원칙을 준수하면서 다큐멘터리 영상의 장점을 접목하여 기록 수집의 한계를 보완하는 영상기록 생산·수집
  - 수집팀과 다큐멘터리 전문가는 수집주제 선정, 수집 리드 발굴, 현지조사, 기록 수집, 다큐멘터리 촬영 등의 과정에서 협력하여 수집기록과 다큐멘터리의 상호보완적 역할 구축
  - 수집 리드 중 일부 리드를 선정하여 다큐멘터리 아카이빙을 진행하여 보다 입체적이고 다층적인 기록화 진행
    · 최OO
    · 임OO
    · 박OO
    · 구가도시건축

2) 서울기록원 누리집 서비스용 콘텐츠 기획·제작

- 기존 「아카이빙 북」 제작 과업과 「서울기록원 누리집 서비스용 콘텐츠」 제작 과업을 통합하여 책자 발행 대신 뉴스레터 발행 형태로 전환
  - 제작비 절감 및 온라인 기반 시민 접근성과 확산 효과 향상
- 뉴스레터는 총 2회차(6월호, 12월호)로 발행 예정
  - 각호는 올해 수집 주제와 연계된 기록활동가 4명씩 총 8명의 인터뷰, 다큐멘터리 영상 4편, 서울기록페어 현장 스케치, 시민기록활동가 양성과정 심화반 인터뷰 등으로 구성
- 서울기록화 사업에 참여한 기록활동가, 협력 단체, 시민 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뉴스레터를 통해 서울기록원 누리집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다양한 시민기록과 서울기록화 사업의 주요 성과 공유
  - 기록문화 확산과 시민 참여 기반의 협력 구조 형성을 도모하고, 향후 시민기록 교류 및 기록생태계 조성 과정에서 지속적인 소통의 매개로 활용

다. <2025년 서울기록페어> 개최

- 서울 기록문화 확산을 위해 발굴된 '서울기록 네트워크'를 포함하여 다양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기획·운영
  - <2025년 서울기록페어>는 금년 수집주제 리드와 시민 그리고 가족 단위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기록문화 확산 도모

구분	내용
행사명	- <2025년 서울기록페어: 시민기록으로 만나는 청계천과 생태하천>
기획의도	- 기록문화 행사 개최를 통한 서울기록 생태계 구축 - 서울기록화 사업 수집 리드의 기록 활동 소개 및 상호교류 -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울의 기록문화 확산 - 서울의 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서울기록원 위상 강화
개최일정	- 2025년 10월 24일(금) ~ 25일(토)
개최장소	- 서울기록원(전 프로그램 오프라인 진행)
참여대상	- 서울시민 - 서울기록 네트워크 - 기록 분야 종사자 및 유관 분야 종사자
프로그램	- 기록활동가 공간 <청계천과 생태하천을 기록하는 사람들> - 북큐레이션 <읽는 물결> - 강연프로그램 <시민기록, 실천이 만든 가치> - 기록활동가 교육 프로그램 <시민 아키비스트 툴킷> -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홍제천 기록탐정단> - 가족 교육 프로그램 <2025 우리 가족 타임캡슐> -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꼬불꼬불 기록 탐험> -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기록 미션 탐험대>

<표 1> <2025 서울기록페어> 기획 및 운영방안

- <2025년 서울기록페어> 참여 인원(총 338명)
  - 기록활동가 공간 프로그램 <청계천과 생태하천을 기록하는 사람들>: 156명
  - 북큐레이션 <읽는 물결>: 47명
  - 강연프로그램 <시민기록, 실천이 만든 가치>: 54명
  - 기록활동가 교육 프로그램 <시민 아키비스트 툴킷>: 20명
  -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홍제천 기록탐정단>: 2명
  - 가족 교육 프로그램 <2025 우리 가족 타임캡슐>: 17명
  -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꼬불꼬불 기록 탐험>: 24명
  -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기록 미션 탐험대>: 18명

4 조직 및 수행 일정

가. 조직구성

1) 조직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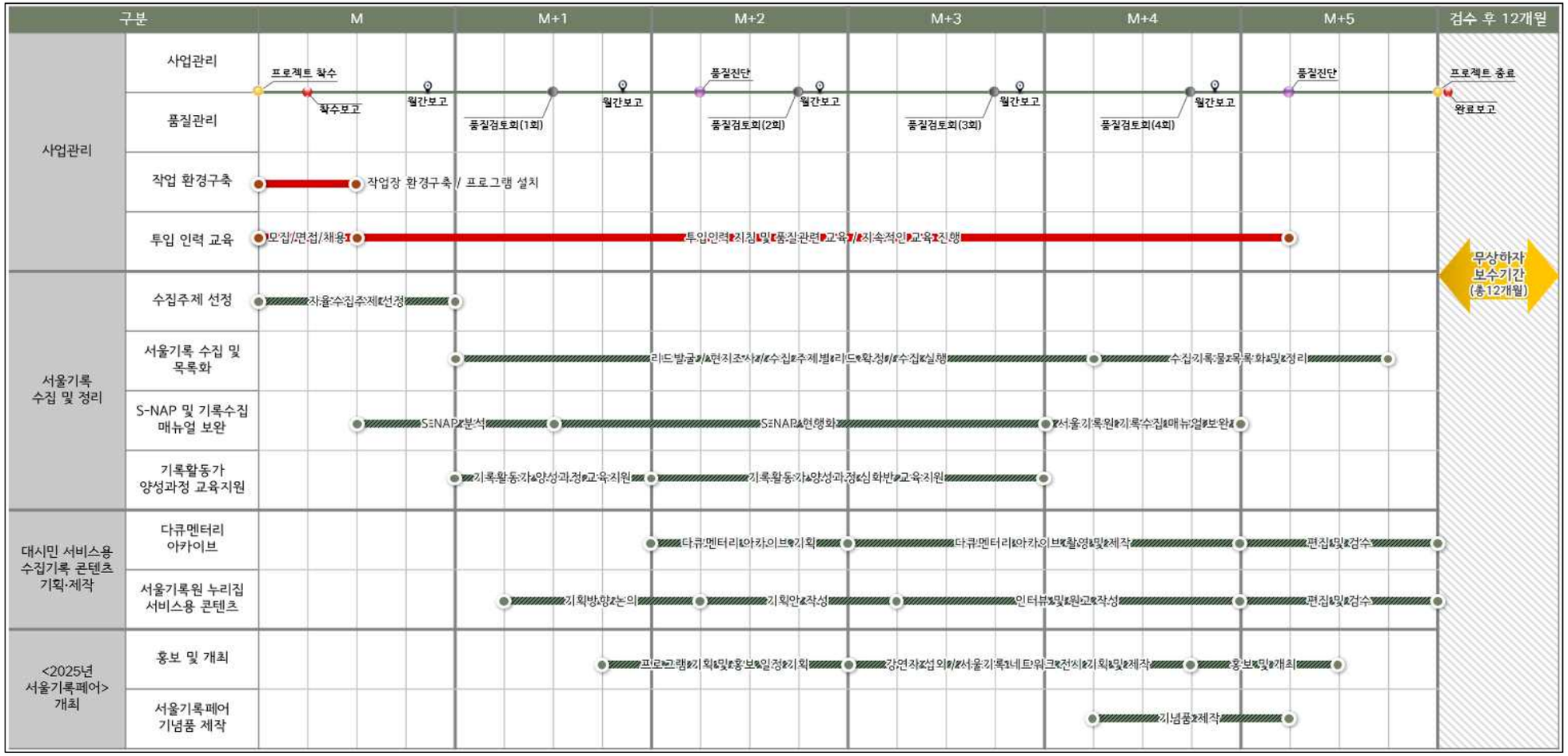


<그림 1> 사업 조직 구성도

2) 조직 운영의 특징

- 수집체계 보완팀으로 선행사업 수행 인력을 투입하여 S-NAP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원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
- 기록물 수집 및 정리팀과 영상 콘텐츠 제작팀, 대시민 수집기록 콘텐츠 제작팀을 동시에 운영하여 수집정리 활동, 다큐멘터리 제작, 대시민 수집기록 콘텐츠 제작 간의 연계 강화
  - 기록활동 조사 및 발굴 활동을 각 팀과 즉시 공유하여 상호 연계 강화
- 수집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 정리 및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조직 구성
- 대시민 수집기록 콘텐츠 제작팀 인원이 기록물 수집 활동 및 콘텐츠 제작에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
- <2025년 서울기록페어>를 개최하여 서울기록화 네트워크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구성

나. 수행 일정



<그림 2> 사업 수행 일정

- 기록물 수집과 대시민 서비스용 수집기록 콘텐츠 제작을 진행하는 데 상호보완이 이루어지도록 일정 구축

Ⅱ. 사업 내용

1. 서울기록 수집 및 정리

2. 대시민 서비스용 수집기록 콘텐츠 기획·제작

3. <2025년 서울기록페어> 개최

1 서울기록 수집 및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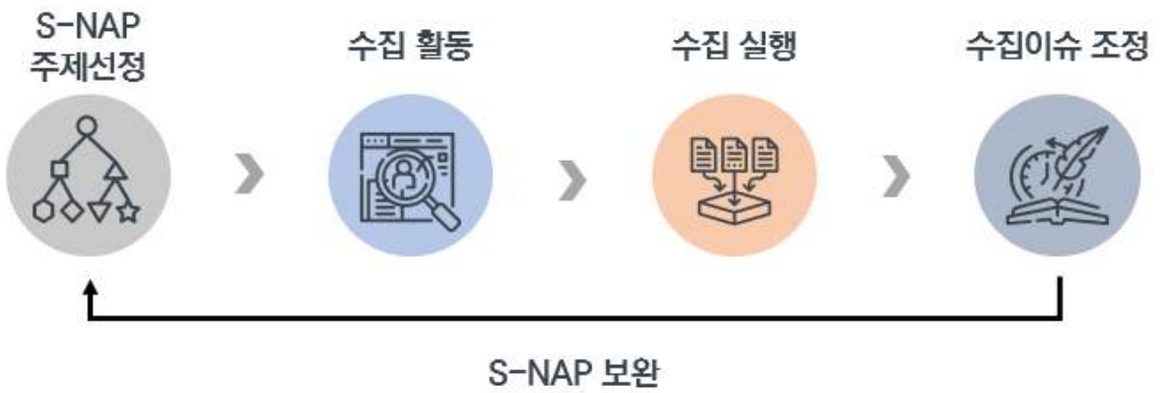
가. 수집주제 선정 및 계획 수립

1) 서울 서사형 기록화 지침(S-NAP)의 목적 및 특징

- 2025년 수집은 「2024년 서울기록화 사업」을 통해 개정된 S-NAP을 기반으로 진행
- 공공기관 행정 기능 중심의 기록 수집정책은 서울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를 기록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2019년 「서울기록 수집 및 기록콘텐츠 개발」사업을 통해 서울을 둘러싼 사회적 기억과 서울시민의 일상적 삶의 특징을 기록화하기 위한 서사 기반의 수집실행지침 개발
- S-NAP은 서울을 움직이는 주체인 서울시민의 삶과 문화적 경험을 역사적이고 동시대적으로 기록화하는 방법으로 제안되었으며, 기록 수집에 대한 관점 전환 내포
- 대표성과 상징성을 지닌 인물, 사건, 장소, 현상 등을 서사와 연결해 맥락을 드러내고 삶의 구성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다원적이고 총체적 기록화를 통해 서울을 재현
- 서사 기반의 기록화 지침인 S-NAP은 사회적 맥락 속 다양한 개인과 집단의 해석을 통해 서울을 총체적으로 재현하고 표상할 수 있는 도구이며, 서울시민의 삶이 모여 서울을 구성하고 있다는 관점을 기반으로 서울기록 수집의 방향성 제시
- S-NAP은 서울기록화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서울기록의 식별과 보완 수집의 도구로 활용

2) S-NAP 기반 수집 활동

- ‘S-NAP 기반 주제 선정’ > ‘수집활동’ > ‘수집실행’ > ‘수집이슈 조정을 통한 S-NAP 보완’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수집 체계 구축
- 수집을 실제 실행하며 수집기록을 아우르는 서사가 수정될 수 있으며 수집 과정의 결과를 통해 S-NAP 보완 및 수정 가능



<그림 3> S-NAP 기반 수집실행 프로세스

3) 수집주제 선정

- 지정주제 '청계천'
  -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기념하여, 청계천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생계, 갈등, 문화 활동, 일상 경험 등 삶의 모습 전반을 아우르는 기록을 목적으로 주제 선정
  - 청계천 복원 전후, 고가도로 철거 및 복원을 둘러싼 찬반 여론, 생계 공동체의 재편, 공간 활용 방식의 변화 등을 중심으로 시민의 시선과 기억을 수집함으로써 청계천이라는 공간의 사회문화적 전환 과정을 입체적으로 구성
  - 청계천 복원 관련 위원회, 시민단체, 여론조사 등 시민의 의견 기록물이 산재한 반면 서울시설공단, 서울시 정책 아카이브, 서울연구원, 청계천박물관 등 공공기관 중심의 청계천 복원 백서 및 연구보고서 중심의 대표 기록물 존재
  - 청계천 복원 공사로 인한 도시공간 및 생태환경 변화, 주변 상권의 도심 제조업에 집중된 기록물이 대다수이며, 복원 사업 진행 과정에서 어떤 시민 의견이 존재했고 어떻게 대처했는지 아카이빙을 통해 사례 공유 및 향후 보완 가능성 확보 필요
- 자율주제 '서울의 생태하천'
  - 서울은 도수하천, 지류하천, 실개천 등 총 75개 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각각의 하천은 도심을 가로지르며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
  - 서우르이 대표적인 하천인 '청계천' 복원을 시작으로 서울시의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사업을 통한 생태하천의 광장화가 가지고 온 다양한 변화

와 시민의 삶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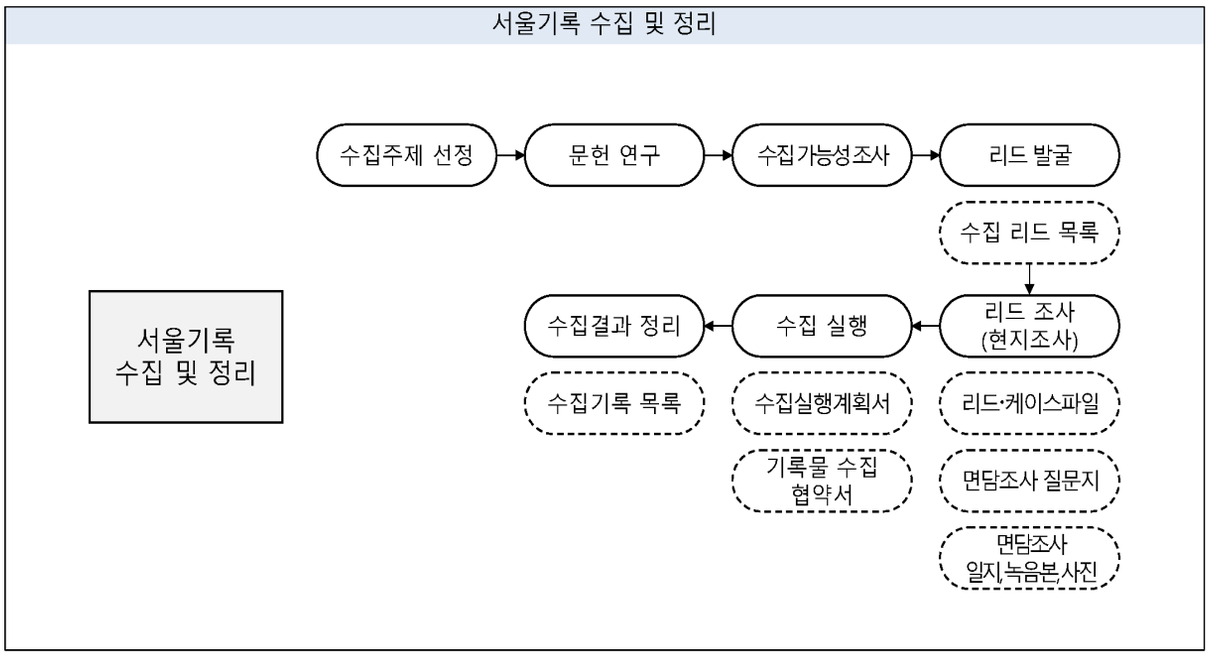
- 생태하천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 문화 행사 등 생태하천에서 활동하는 시민의 '삶' 조명 가능
- 생태하천 중심의 시민의 문화 활동을 기록한 아카이빙의 부재로 생태하천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시민의 '삶' 기록 필요성 제안

4) 수집 활동 방향

- 상호보완 구조
  - 2025년의 수집은 'S-NAP'과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영상 촬영 및 제작', '서울기록원 누리집 서비스용 콘텐츠 기획·제작'간 상호보완적 관계를 강화하여 수집 진행
  - 수집될 시민기록의 수집 지향점과 의미를 S-NAP을 통해 공고히 하고, 이러한 논리가 수집기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시도
  - 그 결과 S-NAP에 기반을 두어 수집을 진행하고, 전체 혹은 일부를 표상화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영상 및 서울기록원 누리집 서비스용 콘텐츠 제작

5) 수집 리드 선정

- 지정주제 '청계천'
  - 청계천의 기록물을 '복개의 시대', '복원의 시간', '복원 이후의 도시' 총 3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기록물 수집
  - '복개의 시대'에는 청계천 복개 전후로 상권 형성, 인구 증가 등의 변화 과정에서 생기는 노동, 빈민 등 다양한 기록물 수집
  - '복원의 시간'에는 복개 이후부터 복원이 완료된 시기의 기록물 및 복원 사업 중 생산된 기록물 수집
  - '복원 이후의 도시'에서는 복원 사업이 완료된 이후 청계천을 중심으로 진행된 행사 및 시민 기록 수집
  - '청계천'은 총 11곳의 리드를 개발하였으며, 해당 리드 중 3곳의 리드를 대상으로 수집 진행
  - 서울기록원 기록활동가 양성과정 심화반 참여자들이 3개 조로 나뉘어 해당 주제를 통해 시민기록 수집 일부 진행



<그림 4> 서울기록 수집실행 프로세스

- 자율주제 '서울의 생태하천'
  - 생태하천을 중심으로 환경활동, 문화 프로그램 진행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의 활동 기록 수집
  - 생태하천을 매개로 시민의 과거 생활 모습을 되돌아보고
  - '서울의 생태하천'은 총 9곳의 리드를 개발하였으며, 해당 리드 중 5곳의 리드를 대상으로 기록물 수집
- 2025년 수집주제는 '청계천'과 '서울의 생태하천'이며, 서울기록원 서울기록활동가 양성과정 심화반 수집 결과를 포함하여 총 1,753건 수집
- 수집 결과는 아래 표에 명시

유형 / 주제	일반문서류	사진그림류	영상음성류	계
청계천	2	361	0	**363**
서울의 생태하천	162	1,107	0	**1,269**
기록활동가 양성과정	0	120	1	**121**
총합계	**164**	**1,588**	**1**	**1,753**

<표 2> 주제별·유형별 수집기록물 현황

나. 서울기록 수집 : 청계천

1) S-NAP 기반 수집

- S-NAP 분석을 통해 서울시민의 일상적인 영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수집 진행
- S-NAP을 통한 수집은 행정적 관점에서 벗어나, 동시대 시민의 삶과 역사를 기록으로 발견하는 시도이며, S-NAP의 시선에 따라 수집 진행

2) 청계천 수집계획

- ‘2024년 S-NAP’을 적용하여 지정주제 ‘청계천’ 수집계획 수립
  - 청계천 복개 전후, 고가도로 철거 및 복원을 둘러싼 찬반 여론, 생계 공동체의 재편, 공간 활용 방식의 변화 등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의 시선과 기억 수집 계획 수립
  - 청계천을 중심으로 복개 및 복원 전후로 변화하는 시민의 ‘삶’의 모습과 활동의 변화에 대한 기록물 수집
  - 청계천을 중심으로 활동하거나 생활하는 시민의 대다수는 개인이면서도 공동체를 형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므로 청계천의 변천 과정 속에서 시민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공동체 활동의 변화상을 기록 가능
  - ‘청계천’은 이러한 변화상을 서사로 드러내기에 적합한 수집주제
  - ‘청계천’에서 시민 개인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공동체를 기록하거나 공동체의 소속원으로서 기록한 활동에 대한 모습의 수집 지향
  - S-NAP의 기본 서사 지향과 각 서사의 내용과 관련 있는 리드를 발굴하여 ‘청계천의 변천 과정’, ‘청계천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시민과 공동체의 모습’ 등 주제 의식을 도출하고 현지 조사 진행
- S-NAP, 다큐멘터리, 수집과의 유기적인 구조체계로 운영
  - 청계천을 ‘복개의 시대’, ‘복원의 시간’, ‘복원 이후의 도시’ 총 3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청계천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서울시민의 ‘삶’을 수집
  - S-NAP 분석을 통해 리드를 조사하고, 현지조사를 통해 실현 가능성과 기록의 소장 여부 등을 조사하여 리드 후보 설정
  - 후보군은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최OO’, ‘임OO’, ‘박OO’ 등 11곳 선정
  - 현지 조사 결과 S-NAP의 지향점과 보유기록의 양에 따라 확정 리드는 총 3곳 선정
  - 확정 리드 중 ‘최OO’, ‘임OO’, ‘박OO’은 청계천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변화된 삶을 보여줄 수 있기에 수집 한계 보완을 위해 다큐멘터리 기록 수집

도 병행

- 리드·케이스파일 작성을 통한 수집 리드 관리
  - 기록물 수집 및 정리팀은 수집 리드의 세부조사 과정 및 면담 조사 과정을 ‘리드·케이스파일’과 ‘면담조사 일지’로 작성
  - 리드파일 작성을 통해 각 리드와 연관된 다양한 세부 정보, 활동 정리
  - 케이스파일과 면담조사 일지를 작성하여 면담 과정에서의 대화를 정리 및 문서화하고, 면담 과정에서 발생한 특이사항이나 추천받은 기록활동가 등 추가조사 필요 내용을 정리하여 추후 기록물 수집계획의 수립 및 추진 단계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수집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 ‘기록물 수집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집계획 및 실제 수집 과정 기록

서울기록원 2025년 서울기록화 사업 수집 리드파일

수집 리드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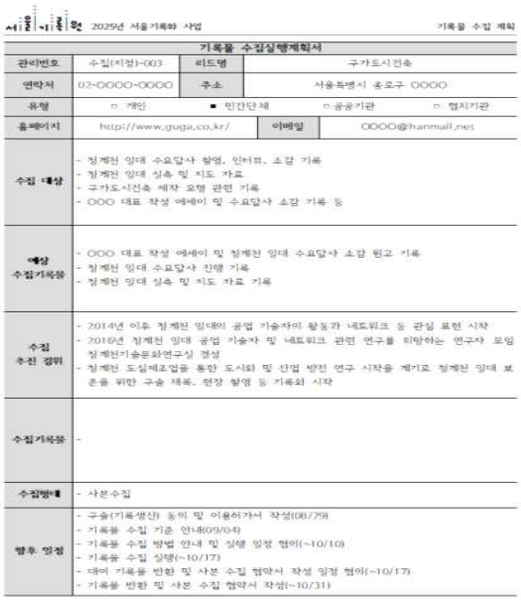
관리번호	수집(지정)-013	리드명	OOO
연락처	010-OOOO-OOOO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
유형	■ 개인 □ 민간단체 □ 공공기관 □ 협치기관		
홈페이지	https://jeongeunlee.com/	이메일	eunsterling@naver.com
연관정보	OOO		
개요	활동지역	-	
	활동연혁	- 주요 행동 - 전시 <종로의 원본기사> ※ 2019년 기획 및 참여 ※ 기금속 공예 산업 종사자인 원본기사 개인이 삶에서 공예 산업의 거점으로서 종로3가와 돈화문로 일대의 지역성과 역사성 주목 - 다큐멘터리 <종로의 원본기사> ※ 2019년 연출 및 기획 ※ 서울 도심 내 제조업 소멸 현상을 관찰하고 제작문화를 구성하는 사람, 기술, 지역의 사라짐에 대해 기록하고자 기획 - 전시 <예지동 작은 발표회> ※ 2020년 기획 및 참여 ※ 원본기술의 발 전시: 다큐멘터리 <종로의 원본기사> 상영 및 기금속 장신구 분야의 책자, 잡지, 학술연구 등 수집 자료로 구성된 아카이브 자료 전시 및 <원본기술용어수첩> 제작 ※ 예지상가의 기록동 전시: 예지상가에서 발굴한 시계잡지, 상공업 조합의 기록물, 모델 책상, 해업한 골목식당의 전단지 등 예지상가의 시공간 매상하여 구상 ※ 사라져가는 기술을 기록하기 방표: 사라져가는 기술을 기록하기 위한 활동 소개 및 앞으로 활동과 노력 방향 공유 - 조직 구성 - 유투형연구소 운영 - 컨테이브 컨트리뷰터스(CONTRIBUTORS) 공동 기획자 - 연혁 - 2019. 전시 <종로의 원본기사> 기획 및 참여 - 2019. 다큐멘터리 <종로의 원본기사> 연출 및 기획 - 2020. 전시 <예지동 작은 발표회> 기획 및 참여

서울기록원 2025년 서울기록화 사업 수집 케이스파일

수집 케이스파일

관리번호	수집(지정)-013	리드명	OOO	
유형	■ 개인 □ 민간단체 □ 공공기관 □ 협치기관			
수집출처		생산일		
접촉일지	회차	일시	조사자	피조사자
	1	2025. 07. 25.	OOO	OOO
	2	2025. 09. 05.	OOO	OOO
	3	2025. 09. 07.	OOO	OOO
	4	2025. 09. 08.	OOO	OOO
	5	2025. 09. 08.	OOO	OOO
	6	2025. 09. 08.	OOO	OOO
	7	2025. 09. 09.	OOO	OOO
	8	2025. 09. 11.	OOO	OOO
	9	2025. 09. 18.	OOO	OOO
	10	2025. 09. 18.	OOO	OOO
접촉경과	[1차] 면담 문의(이메일) [2차] 면담 재문의(이메일) [3차] 면담 보류 회신(이메일) [4차] 면담 요청 사유 상세 회신(이메일) [5차] 면담 일정 협의(이메일) [6차] 면담 일정 및 장소 협의(이메일) [7차] 면담 일정 및 장소 확정(이메일) [8차] 면담 예상 질문지, 구술 동의 및 이용허가서 공유(이메일) [9차] 면담 진행(대면) [10차] 시민기록물 수집 기준 공유(이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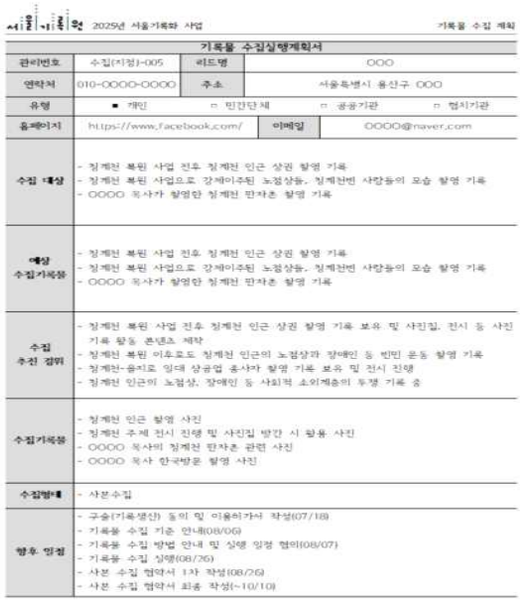
<그림 5> 리드·케이스파일(이OO)



서울기록원 2025년 서울기록화 사업 기록물 수집 계획

기록물 수집실행계획서

관리번호	수집(지정)-003	리드명	구가도시건축
연락처	02-0000-0000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0000
유형	□ 개인	■ 민간단체	□ 공공기관 □ 협치기관
홈페이지	http://www.guga.co.kr/	이메일	0000@hanmail.net
수집 대상	- 청계천 임대 수요답사 촬영, 인터뷰, 소감 기록 - 청계천 임대 실측 및 지도 자료 - 구가도시건축 제작 모형 관련 기록 - OOO 대표 작성 에세이 및 수요답사 소감 기록 등		
예상 수집기록물	- OOO 대표 작성 에세이 및 청계천 임대 수요답사 소감 원고 기록 - 청계천 임대 수요답사 진행 기록 - 청계천 임대 실측 및 지도 자료 기록		
수집 추진 경위	- 2014년 이후 청계천 임대의 공업 기술자의 활동과 네트워크 등 관심 표현 시작 - 2016년 청계천 임대 공업 기술자 및 네트워크 관련 연구를 희망하는 연구자 모임 청계천기술문화연구실 결성 - 청계천 도심재조업을 통한 도시와 및 산업 발전 연구 시작을 계기로 청계천 임대 보존을 위한 구술 채록, 현장 촬영 등 기록화 시작		
수집기록물	-		
수집방법	- 사본수집		
향후 일정	- 구술(기록생산) 동의 및 이용허가서 작성(08/29) - 기록물 수집 기준 안내(09/04) - 기록물 수집 방법 안내 및 실행 일정 협의(~10/10) - 기록물 수집 실행(~10/17) - 대여 기록물 반환 및 사본 수집 협약서 작성 일정 협의(~10/17) - 기록물 반환 및 사본 수집 협약서 작성(~10/31)		



서울기록원 2025년 서울기록화 사업 기록물 수집 계획

기록물 수집실행계획서

관리번호	수집(지정)-005	리드명	OOO
연락처	010-0000-0000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유형	■ 개인	□ 민간단체	□ 공공기관 □ 협치기관
홈페이지	https://www.facebook.com/	이메일	0000@naver.com
수집 대상	- 청계천 복원 사업 전후 청계천 인근 상권 촬영 기록 - 청계천 복원 사업으로 강제이주된 노점상들, 청계천변 사람들의 모습 촬영 기록 - 0000 목사가 촬영한 청계천 판자촌 촬영 기록		
예상 수집기록물	- 청계천 복원 사업 전후 청계천 인근 상권 촬영 기록 - 청계천 복원 사업으로 강제이주된 노점상들, 청계천변 사람들의 모습 촬영 기록 - 0000 목사가 촬영한 청계천 판자촌 촬영 기록		
수집 추진 경위	- 청계천 복원 사업 전후 청계천 인근 상권 촬영 기록 보유 및 사진집, 전시 등 사진 기록 활동 콘텐츠 제작 - 청계천 복원 이후로도 청계천 인근의 노점상과 장애인 등 빈민 운동 촬영 기록 - 청계천-을지로 임대 상공업 종사자 촬영 기록 보유 및 전시 진행 - 청계천 인근의 노점상,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의 투쟁 기록 중		
수집기록물	- 청계천 인근 촬영 사진 - 청계천 주제 전시 진행 및 사진집 발간 시 활용 사진 - 0000 목사의 청계천 판자촌 관련 사진 - 0000 목사 한국방문 촬영 사진		
수집방법	- 사본수집		
향후 일정	- 구술(기록생산) 동의 및 이용허가서 작성(07/18) - 기록물 수집 기준 안내(08/06) - 기록물 수집 방법 안내 및 실행 일정 협의(08/07) - 기록물 수집 실행(08/26) - 사본 수집 협약서 1차 작성(08/26) - 사본 수집 협약서 최종 작성(~10/10)		

<그림 6> 기록물 수집실행계획서(구가도시건축(좌), 최OO(우))

3) 리드 조사(현지조사)

- 예상 수집 리드 접촉
  - 작성된 리드파일을 중심으로 수집 가능성 조사 이후 예상 수집기록물이 있을 경우 예상 수집 리드에게 유선, 이메일, SNS 등을 사용하여 접촉
  - 예상 수집 리드와 면담 일정을 잡고 면담 시 기록 활동과 생산기록물, 기록관리 방법 등 조사

4) 면담 진행

- 면담을 통해 예상 수집 리드의 구체적인 기록 활동과 생산기록물, 기록관리 방법 등을 파악하고 확인
- 예상 수집 리드 후보군을 대상으로 유선, 이메일, SNS 등 매체를 활용한 접촉을 통해 면담 의사 확인 후 일정 조율
- 2025년 7월부터 9월까지 면담을 진행한 11개의 리드를 최종 예상 수집 리드로 선정
- 면담 과정 및 결과는 '리드·케이스파일'과 '면담일지'로 정리
- 최종 예상 수집 리드 후보로 선정된 11개의 리드의 면담 주요 내용은 아래 표에 명시

구분	리드명	면담 주요 내용
1	**청계천박물관**	- 청계천 관련 대표 공공기관 - 청계천의 변천과정과 청계천박물관의 활동, 향후 계획 등
2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 2018년 청계천 세운지구 재개발 및 철거에 반대하는 연구자, 지역 예술가, 활동가 등 모여서 만든 시민 모임 단체로 법적 형태로 등록된 단체는 아님 - 상인 보호, 상권 유지 마련 등 상권 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 대응 진행 - 철거 및 재개발 반대를 위한 캠페인과 지역 투어 프로그램, 산업생태계 기록화 작업 진행
3	**최OO (사진가)**	- 청계천 복개 시기 당시 삼일아파트 거주 및 인근 생업 종사 경험 보유 - 청계천 복원 사업 과정에서 강제 철거된 노점상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기록 - 일본인 노OOO 목사가 촬영한 청계천 판자촌 경관 및 거주 주민들의 생활 모습 촬영 기록 소개
4	**임OO (블로그 운영자)**	- 청계천 복개 전후 삼일아파트 철거 당시 내부 및 외부 경관 등 개인적으로 촬영 및 블로그 업로드 - 2000년 초반부터 거의 매일 1개씩 사진으로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기록하고 있는 중
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청계천 복원 사업 당시 환경, 역사,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와 연합하여 급작스러운 복원 사업에 반대하는 성명서 발표 - 청계천 복원 사업 관련 보도자료 발표, 간담회 등 시민 여론을 알리는 업무 진행 - 단체 활동을 아카이빙하여 기록활동 진행 중
6	**최OO (연구자)**	-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를 포함하여 다양한 단체와 모임에서 산업생태계를 연구하고 조사하는 연구자 - 기록관리, 구술 등 기록을 활용하여 청계천 세운지구에서 생활하는 기술산업 종사 소상공인에 대한 기록화 진행
7	**고OO (예술가)**	- 을지로에서 활동 중인 예술가 - 월간 작은 도시 이야기라는 월간지를 통해 을지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 인터뷰, 을지로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행사 등 소개 - 을지로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를 대상으로 구술 인터뷰를 진행하고 웹진을 통해 아카이빙 진행 중 - 예술가가 도시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예술에 대한 고민과 활동 진행

구분	리드명	면담 주요 내용
8	구가도시건축	- 약 20년 동안 서울의 동네를 답사하고 기록하고 모형으로 제작하며 기록화 진행 - 3번의 답사를 통해 청계천 인근 세운상가 일대에 대한 실측 및 기록화 진행
9	리슨투더시티	- 2009년 미술, 디자인, 건축, 영화, 인문학,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이 함께 모인 콜렉티브 단체 - 과도한 개발, 환경 및 문화적 다양성 파괴에 대한 문제 제기를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대중의 인식 환기 - 전시, 출판, 행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라져가는 대상에 대한 기록화 진행 - 데이터와 기록을 구축하여 사라져가는 소수가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 마련
10	박OO (활동가)	- 빈민운동가로 청계천 하류 지역 판자촌에서 거주 경험 보유 - 청계천 판자촌에서 빈민운동가로 활동한 선배의 구술자료집 제작 - 청계천 판자촌이 있던 지역에서 현장답사를 진행하며 과거 청계천에 대한 역사 안내
11	이OO (연구자)	- 귀금속 분야 및 기술 산업 생태계를 기록하는 연구자 - 종로 일대와 예지동 귀금속 산업에 대해 연구 및 귀금속 산업 관련 전시 진행 - 기록관리에 관심이 많으며 기록은 다감각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으로 기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

<표 3> 지정주제 '청계천' 면담 주요 내용

5) ‘청계천’ 주요 수집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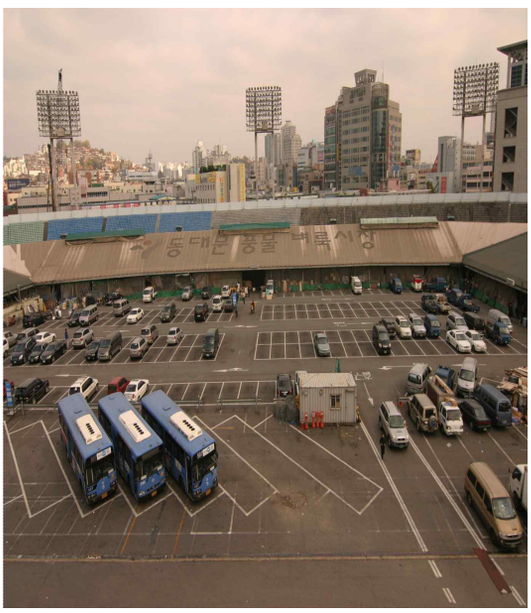
청계천
지정주제 ‘청계천’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기념하여 청계천의 변천 과정에서 변화하는 시민의 삶에 집중. 청계천 복개 이전 시기 청계천 판자촌을 중심으로 빈민 운동을 진행한 선배 세대의 구술자료집을 제작하고 현재와 과거의 청계천을 비교하는 현장답살르 진행하는 ‘박OO’, 청계천 복원 사업 전후 청계천과 인근 삼일아파트의 철거 전경을 사진으로 촬영한 ‘임OO’, 청계천 복원 사업 시기 철거로 쫓겨나는 노점상과 복원 사업으로 변화하는 청계천의 전경을 사진으로 촬영해 기록으로 남긴 ‘최OO’ 등이 청계천에 대해 민간영역에서의 활동을 보여주는 곳이라 판단되어 수집리드로 확정 후 기록물 수집 진행 (주요서사) 청계천 복개 이전, 청계천 복원 사업 시기, 청계천 복원 이후 3개의 시대로 나뉘어서 청계천의 변천 과정과 청계천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기록물 수집

- 임OO, 2025년 8월 24일 수집(178점)
  - 청계천 복원 사업 중 철거되는 삼일아파트 내부 및 외부 전경 관련 기록 수집
  - 청계천 복원 사업 전후 상가건물, 길거리, 시장 등 전경 관련 기록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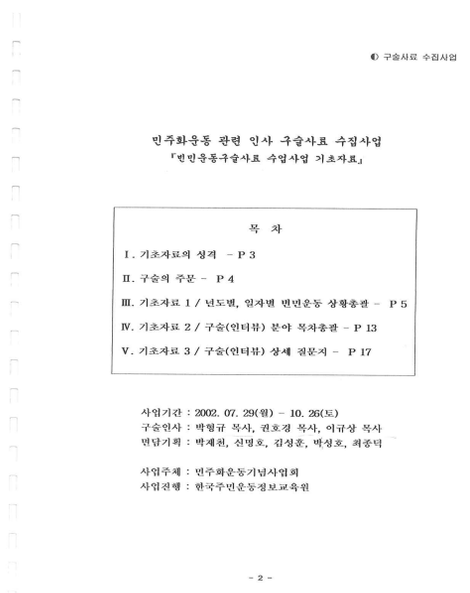
<그림 7> ‘임○○’ 수집기록물 예시

- 최OO, 2025년 8월 26일 수집(183건)
  - 청계천 복원 사업 중 노점상 철거 반대 운동 관련 촬영 기록 수집
  - 재개발 및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청계천 인근 전경 촬영 기록 수집




<그림 8> '최OO' 수집기록물 예시

- 박OO, 2025년 9월 8일 수집(2건)
  -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 구술사료 수집사업의 빈민운동 구술사료 수집사업 기초자료 수집
  - 청계천 판자촌 설명 자료 수집


◐ 구술사료 수집사업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 구술사료 수집사업
『빈민운동구술사료 수업사업 기초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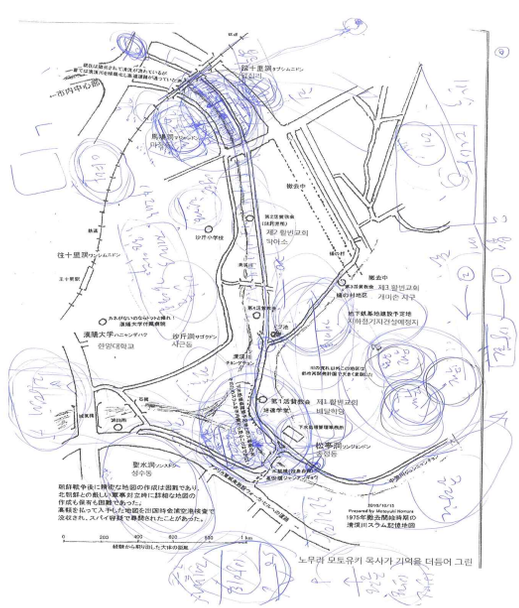
목 차

Ⅰ. 기초자료의 성격 - P 3
Ⅱ. 구술의 주분 - P 4
Ⅲ. 기초자료 1 / 년도별, 일자별 면면운동 상황종괄 - P 5
Ⅳ. 기초자료 2 / 구술(인터뷰) 분야 목차종괄 - P 13
Ⅴ. 기초자료 3 / 구술(인터뷰) 상세 질분지 - P 17

사업기간 : 2002. 07. 29(월) - 10. 26(토)
구술인사 : 박형규 목사, 권호경 목사, 이규상 목사
면담기획 : 박재천, 선명호, 김성훈, 박성호, 최종덕

사업주체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업진행 : 한국주면운동정보교육원

- 2 -



<그림 9> '박OO' 수집기록물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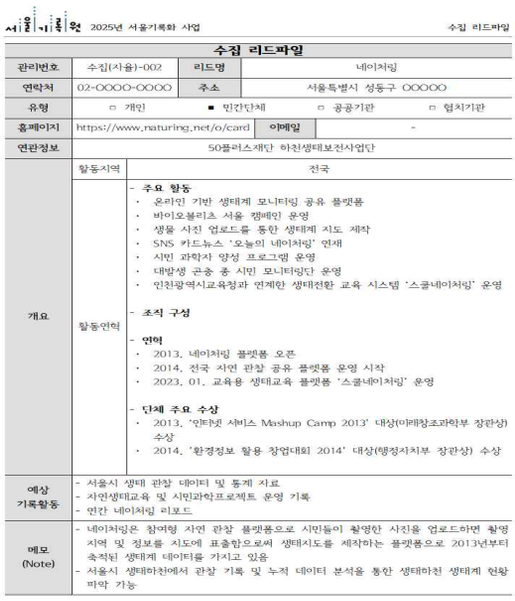
다. 서울기록 수집 : 서울의 생태하천

1) 서울의 생태하천 수집계획

- ‘서울의 생태하천’과 상응하는 수집계획 설정
  - 청계천 복원 사업 이후, 서울의 많은 하천들에서 청꼐천을 모델로 하여 생태하천 조성 시작
  - 생태하천으로 조성된 공간에서 많은 시민들이 운동, 전시물 관람, 공연 감상 등 문화 생활 향유
  - 하천이 생태하천으로 변화하며 자연환경 생태계에서 생기는 모습이 포착되고 이를 기록화
  - ‘서울의 생태하천’은 서울 하천의 생태하천으로의 변화, 생태하천을 향유하는 시민의 모습, 생태하천의 자연환경 생태계 모니터링 기록 등을 아카이빙 할 수 있는 주요 수집 주제
  - 생태하천은 아니지만 하천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강문화 사업 기록물을 수집하여 생태하천 기록물 보완 수집
- S-NAP, 수집, 서울기록원 누리집 콘텐츠의 유기적인 구조체계로 운영
  - S-NAP의 서사에서 ‘생태하천’, ‘문화 생활’, ‘강문화 사업’, ‘모니터링’ 등 생태하천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의 모습과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는 시민의 모습 수집
  - S-NAP 분석을 통해 리드를 조사하고, 현지조사를 통해 실현 가능성과 기록의 소장 여부 등을 조사하여 리드 후보 설정
  - 후보군은 ‘마을언덕회사회적협도조합’, ‘북부환경정의 중랑천사람들’, ‘강OO’ 등 9곳 선정
  - 현지 조사 결과 S-NAP의 지향점과 보유기록의 양에 따라 확정 리드는 총 5곳 선정
  - 확정 리드 중 ‘생활환경실천단’, ‘강OO’은 서울의 생태하천을 중심으로 어떤 활동을 진행했고 그 결과로 서울기록원 누리집 콘텐츠 제작도 병행
- 리드・케이스파일 작성을 통한 수집 리드 관리
  - 기록물 수집 및 정리팀은 수집 리드의 세부조사 과정 및 면담 조사 과정을 ‘리드·케이스파일’과 ‘면담조사 일지’로 작성
  - 리드파일 작성을 통해 각 리드와 연관된 다양한 세부 정보, 활동 정리
  - 케이스파일과 면담조사 일지를 작성하여 면담 과정에서의 대화를 정리 및 문서화하고, 면담 과정에서 발생한 특이사항이나 추천받은 기록활동

가 등 추가조사 필요 내용을 정리하여 추후 기록물 수집계획의 수립 및 추진 단계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수집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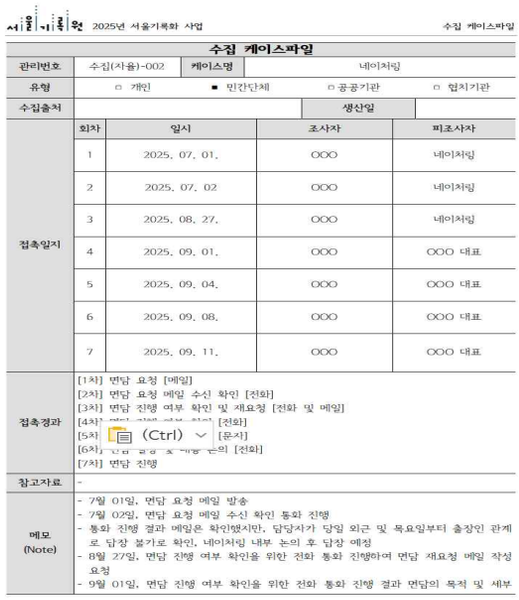
- ‘기록물 수집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집계획 및 실제 수집 과정 기록



서울기록원 2025년 서울기록화 사업 수집 리드파일

수집 리드파일

관리번호	수집(자율)-002	리드명	네이처링
연락처	02-OOOO-OOOO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OO
유형	□ 개인 ■ 민간단체 □ 공공기관 □ 협치기관		
홈페이지	https://www.naturing.net/o/card	이메일	-
연관정보	5O플러스재단 하천생태보전사업단		
개요	활동지역	전국	
	활동연혁	- **주요 활동** · 온라인 기반 생태계 모니터링 공유 플랫폼 · 바이오블리츠 서울 캠페인 운영 · 생물 사진 업로드를 통한 생태계 지도 제작 · SNS 카드뉴스 ‘오늘의 네이처링’ 연재 · 시민 과학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 · 대발생 곤충 종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연계한 생태전환 교육 시스템 ‘스쿨네이처링’ 운영 - **조직 구성** - **연혁** · 2013. 네이처링 플랫폼 오픈 · 2014. 전국 자연 관찰 공유 플랫폼 운영 시작 · 2023. 01. 교육용 생태교육 플랫폼 ‘스쿨네이처링’ 운영 - **단체 주요 수상** · 2013. ‘인터넷 서비스 Mashup Camp 2013’ 대상(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수상 · 2014. ‘환경정보 활용 창업대회 2014’ 대상(행정자치부 장관상) 수상
예상 기록활동	- 서울시 생태 관찰 데이터 및 통계 자료 - 자연생태교육 및 시민과학프로젝트 운영 기록 - 연간 네이처링 리포트		
메모 (Note)	- 네이처링은 참여형 자연 관찰 플랫폼으로 시민들이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하면 촬영 지역 및 정보를 지도에 표출함으로써 생태지도를 제작하는 플랫폼으로 2013년부터 축적된 생태계 데이터를 가지고 있음 - 서울시 생태하천에서 관찰 기록 및 누적 데이터 분석을 통한 생태하천 생태계 현황 파악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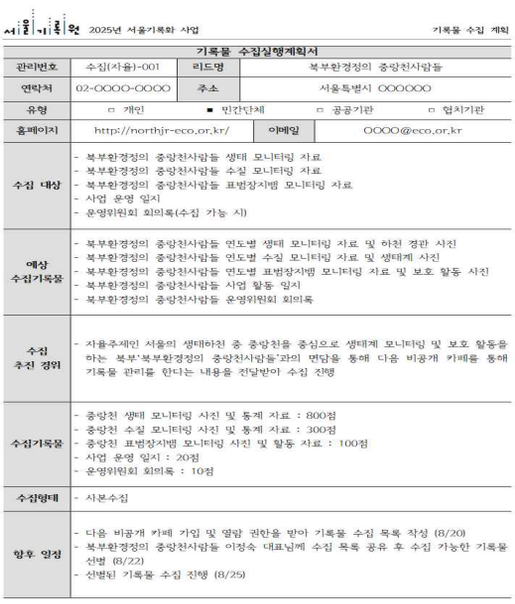


서울기록원 2025년 서울기록화 사업 수집 케이스파일

수집 케이스파일

관리번호	수집(자율)-002	케이스명	네이처링	
유형	□ 개인 ■ 민간단체 □ 공공기관 □ 협치기관			
수집출처		생산일		
접촉일지	회차	일시	조사자	피조사자
	1	2025. 07. 01.	OOO	네이처링
	2	2025. 07. 02	OOO	네이처링
	3	2025. 08. 27.	OOO	네이처링
	4	2025. 09. 01.	OOO	OOO 대표
	5	2025. 09. 04.	OOO	OOO 대표
	6	2025. 09. 08.	OOO	OOO 대표
	7	2025. 09. 11.	OOO	OOO 대표
접촉경과	[1차] 면담 요청 [메일] [2차] 면담 요청 메일 수신 확인 [전화] [3차] 면담 진행 여부 확인 및 재요청 [전화 및 메일] [4차] [illegible] [전화] [5차] (Ctrl) [문자] [6차] [illegible] [전화] [7차] 면담 진행			
참고자료	-			
메모 (Note)	- 7월 01일, 면담 요청 메일 발송 - 7월 02일, 면담 요청 메일 수신 확인 통화 진행 - 통화 진행 결과 메일은 확인했지만, 담당자가 당일 외근 및 목요일부터 출장인 관계로 담당 분기로 확인, 네이처링 내부 논의 후 답장 예정 - 8월 27일, 면담 진행 여부 확인을 위한 전화 통화 진행하여 면담 재요청 메일 작성 요청 - 9월 01일, 면담 진행 여부 확인을 위한 전화 통화 진행 결과 면담의 목적 및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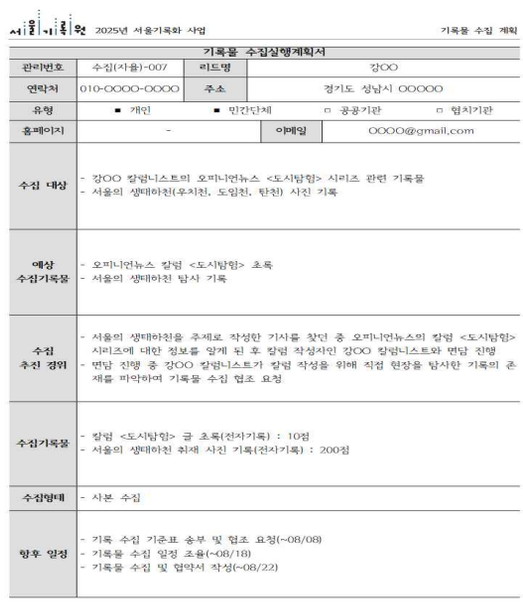
<그림 10> 리드·케이스파일(네이처링)



서울기록원 2025년 서울기록화 사업 기록물 수집 계획

기록물 수집실행계획서

관리번호	수집(자율)-001	리드명	북부환경정의 중랑천사람들
연락처	02-OOOO-OOOO	주소	서울특별시 OOOOOO
유형	□ 개인 ■ 민간단체 □ 공공기관 □ 협치기관		
홈페이지	http://northjr-eco.or.kr/	이메일	OOOO@eco.or.kr
수집 대상	- 북부환경정의 중랑천사람들 생태 모니터링 자료 - 북부환경정의 중랑천사람들 수질 모니터링 자료 - 북부환경정의 중랑천사람들 표범장지뱀 모니터링 자료 - 사업 운영 일지 - 운영위원회 회의록(수집 가능 시)		
예상 수집기록물	- 북부환경정의 중랑천사람들 연도별 생태 모니터링 자료 및 하천 경관 사진 - 북부환경정의 중랑천사람들 연도별 수질 모니터링 자료 및 생태계 사진 - 북부환경정의 중랑천사람들 연도별 표범장지뱀 모니터링 자료 및 보호 활동 사진 - 북부환경정의 중랑천사람들 사업 활동 일지 - 북부환경정의 중랑천사람들 운영위원회 회의록		
수집 추천 경위	- 서울주제인 서울의 생태하천 중 중랑천을 중심으로 생태계 모니터링 및 보호 활동을 하는 북부'북부환경정의 중랑천사람들'과의 면담을 통해 다음 비공개 카페를 통해 기록물 관리를 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아 수집 진행		
수집기록물	- 중랑천 생태 모니터링 사진 및 통계 자료 : 800점 - 중랑천 수질 모니터링 사진 및 통계 자료 : 300점 - 중랑천 표범장지뱀 모니터링 사진 및 활동 자료 : 100점 - 사업 운영 일지 : 20점 - 운영위원회 회의록 : 10점		
수집형태	- 사본수집		
향후 일정	- 다음 비공개 카페 가입 및 열람 권한을 받아 기록물 수집 목록 작성 (8/20) - 북부환경정의 중랑천사람들 이정숙 대표님께 수집 목록 공유 후 수집 가능한 기록물 선별 (8/22) - 선별된 기록물 수집 진행 (8/25)		



서울기록원 2025년 서울기록화 사업 기록물 수집 계획

기록물 수집실행계획서

관리번호	수집(자율)-007	리드명	강OO
연락처	010-OOOO-OOOO	주소	경기도 성남시 OOOOO
유형	■ 개인 ■ 민간단체 □ 공공기관 □ 협치기관		
홈페이지	-	이메일	OOOO@gmail.com
수집 대상	- 강OO 칼럼니스트의 오피니언뉴스 <도시탐험> 시리즈 관련 기록물 - 서울의 생태하천(우치천, 도림천, 탄천) 사진 기록		
예상 수집기록물	- 오피니언뉴스 칼럼 <도시탐험> 초록 - 서울의 생태하천 탐사 기록		
수집 추천 경위	- 서울의 생태하천을 주제로 작성한 기사를 찾던 중 오피니언뉴스의 칼럼 <도시탐험> 시리즈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 후 칼럼 작성시인 강OO 칼럼니스트와 면담 진행 - 면담 진행 중 강OO 칼럼니스트가 칼럼 작성을 위해 직접 현장을 탐사한 기록의 존재를 파악하여 기록물 수집 협조 요청		
수집기록물	- 칼럼 <도시탐험> 글 초록(전자기록) : 10점 - 서울의 생태하천 취재 사진 기록(전자기록) : 200점		
수집형태	- 사본 수집		
향후 일정	- 기록 수집 기준표 송부 및 협조 요청(~08/08) - 기록물 수집 일정 조율(~08/18) - 기록물 수집 및 협약서 작성(~08/22)		

<그림 11> 기록물 수집실행계획서(북부환경정의 중랑천사람들(좌), 강OO(우))

3) 리드 조사(현지조사)

- 예상 수집 리드 접촉
  - 작성된 리드파일을 중심으로 수집 가능성 조사 이후 예상 수집기록물이 있을 경우 예상 수집 리드에게 유선, 이메일, SNS 등을 사용하여 접촉
  - 예상 수집 리드와 면담 일정을 잡고 면담 시 기록 활동과 생산기록물, 기록관리 방법 등 조사

4) 면담 진행

- 면담을 통해 예상 수집 리드의 구체적인 기록 활동과 생산기록물, 기록관리 방법 등을 파악하고 확인
- 예상 수집 리드 후보군을 대상으로 유선, 이메일, SNS 등 매체를 활용한 접촉을 통해 면담 의사 확인 후 일정 조율
- 2025년 7월부터 9월까지 면담을 진행한 8개의 리드를 최종 예상 수집 리드로 선정
- 면담 과정 및 결과는 '리드·케이스파일'과 '면담일지'로 정리
- 최종 예상 수집 리드 후보로 선정된 8개의 리드의 면담 주요 내용은 아래 표에 명시

구분	리드명	면담 주요 내용
1	**북부환경정의 중랑천사람들**	- 환경교육, 수질검사, 중랑천 서식 생물 서적 발간 등 업무에서 멸종위기 및 보호종 조사와 보존 활동 수행 중 - 업무를 진행하며 기록물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아 기록관리를 중요하게 판단
2	**마을언덕 사회적 협동조합**	- 환경 교육, 커뮤니티 활성화,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 기록관리에 필요성을 느껴 프로그램 교육을 수강한 경험이 있으며 다양한 관리 방법 시도 중
3	**강OO (칼럼니스트)**	- 서울의 생태하천을 답사 다니고 기사로 기록하여 연재하는 칼럼니스트 - 현장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 현장 사진 촬영, 인근 오래 거주한 주민의 구술 인터뷰, 문헌과 항공사진 연구, 공공문서와 신문기사, 출판물 등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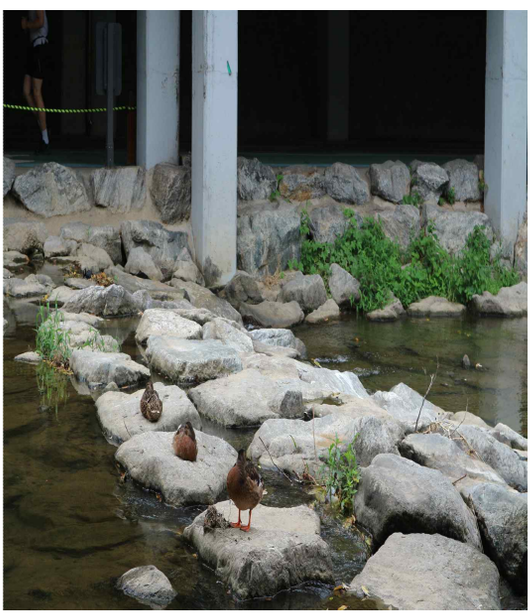
구분	리드명	면담 주요 내용
4	**생활환경 실천단**	- 개인택시운전기사들 중에서 서울을 운전하고 다니며 하천 환경 오염에 심각성을 깨닫고 보존활동과 정화활동을 자발적으로 시작 - 안양천, 중랑천, 우이천 등 서울 전역의 하천에서 정화활동, 환경 감시 등 진행
5	**사회적 협동조합 한강**	- 강문화사업이라는 사업을 통해 하천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 수행 중 - 하천의 생태 정비 및 하천을 중심으로 인근 주민의 공동체 생성 등 활동 진행
6	**한성대학교 아카이빙 프로젝트**	- 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서 진행하는 수업 내용 - 한성대학교를 중심으로 수업시간에 현장을 답사하고 기록 소재를 찾아 기록해보는 활동의 결과물로 구축한 아카이빙 관리 중
7	**네이처링**	- 2014년 자연생태가 시민에게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 관심을 가지던 중 시민과학이라는 키워드를 접하고 플랫폼 네이처링 구축 - 자연 생태의 다양한 데이터를 아카이빙할 수 있는 아카이브 운영 플랫폼
8	**이원익 아카이브**	- 지역 문화예술 관련 업무를 진행하며 부친에게 들었던 지역의 과거 이야기를 기록하여 아카이빙 진행 - 개인의 기억을 기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확성을 중심적으로 고려

<표 4> 자율주제 '서울의 생태하천' 면담 주요 내용

5) ‘서울의 생태하천’ 주요 수집 내용

서울의 생태하천
자율주제 ‘서울의 생태하천’에서 민간영역의 활동을 중심으로 접촉 진행. 개인의 과거역사에서 시작해 하천을 중심으로 전경과 역사 등을 글로 기록하고 이를 칼럼으로 연재하는 ‘강OO’, 홍제천을 포함하여 인근 하천에 대한 환경 교육하고 인근 주민들의 공동체 인식 개선 및 구축하는 ‘마을언덕사회적협동조합’, 중랑천에서의 활동 변화 모습과 그 속에서 중랑천을 향유하는 시민의 삶의 모습을 기록하는 ‘북부환경정의 중랑천사람들’, 하천을 중심으로 공동체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천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 주민의 공동체 활동을 독려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개인택시운전사의 관심거리에서 시작하여 서울 각 지역에 있는 하천에 대한 정화활동을 시작으로 환경 분야에서 하천과 지역 주민의 공존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생활환경실천단’이 민간영역에서의 활동을 보여주는 곳이라 판단되어 수집리드로 확정 후 기록물 수집 진행 (주요서사) 생태하천을 중심으로 환경 보호 및 정화활동, 생태계 관찰, 인근 지역 주민의 공동체 활동 독려 및 지원한 기록물 수집

- 강OO, 2025년 8월 22일 수집(294건)
  - 가오천, 대동천, 도림천, 우이천 등 서울시 내 하천 답사 관련 기록 수집
  - 하천 답사 기록의 칼럼 관련 초고 수집



[도시탐험, 주택가 숲과 계곡 2] 북한산 자락 수유동으로 흘러내리는 계곡들

서울 강북구 수유동(水踰洞)은 이름부터 물과 인연이 깊다. 물 '수'와 넘칠 '유'를 썼다. 북한산 계곡에서 내려온 물이 마을로 흘러넘친다는 데서 유래한 지명이다. 그래서 우리말로 '무너미' 즉 물이 넘친다는 뜻을 가진 동네가 되었다.

수유동에는 북한산 계곡과 관련한 지명이 또 있다. "빨래골"이다. 북한산에서 흘러내리는 계곡물이 맑아, 궁궐의 무수리들이 이곳까지 와서 빨래했다는 데서 유래한 지명이다.

물이 흘러넘쳐서일까, 수유동을 둘러싼 북한산 계곡에서 흘러 내려온 물은 도시하천이 되어 흐르기도 한다. 우이령 계곡물과 소귀천 계곡물이 만나는 우이천이 그렇다. 그런데 북한산 계곡에서 흘러 내려온 물이 수유동 주택가를 지나며 잠시 도시하천의 모습으로 흐르다가 복개되어 우이천으로 향하는 물길도 있다. 대동천과 가오천이 그렇다.

4·19민주묘지 옆으로 흐르는 대동천

우이신설선 4·19민주묘지역 2번 출구 앞 북한산 방향의 이면도로에 들어서면 교통량에 비해 길이 넓다는 느낌이 들 것이다. 복개도로이기 때문이다. 북한산에서 흘러 내려와 4·19민주묘지 옆을 지나 우이천으로 향하는 '대동천'을 덮은 길이다. 이 구간인 삼양로139길은 지목이 '천'으로, 즉 하천으로 되어 있다.

삼양로139길로 들어서 휘어진 길을 따라 북한산 방향으로 약 300m를 올라가면 대동천 복개가 시작하는 지점을 만난다. 즉 계곡 혹은 하천으로서 대동천이 끝나는 구간이기도 하다. 대동천을 하류에서 상류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았다.

대동천은 수유동 주택가를 끼고 흐른다. 하천 양안 바로 옆으로는 1960년대와 70년대에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이 늘어서 있다. 이 일대는 1960년대부터 주택가가 형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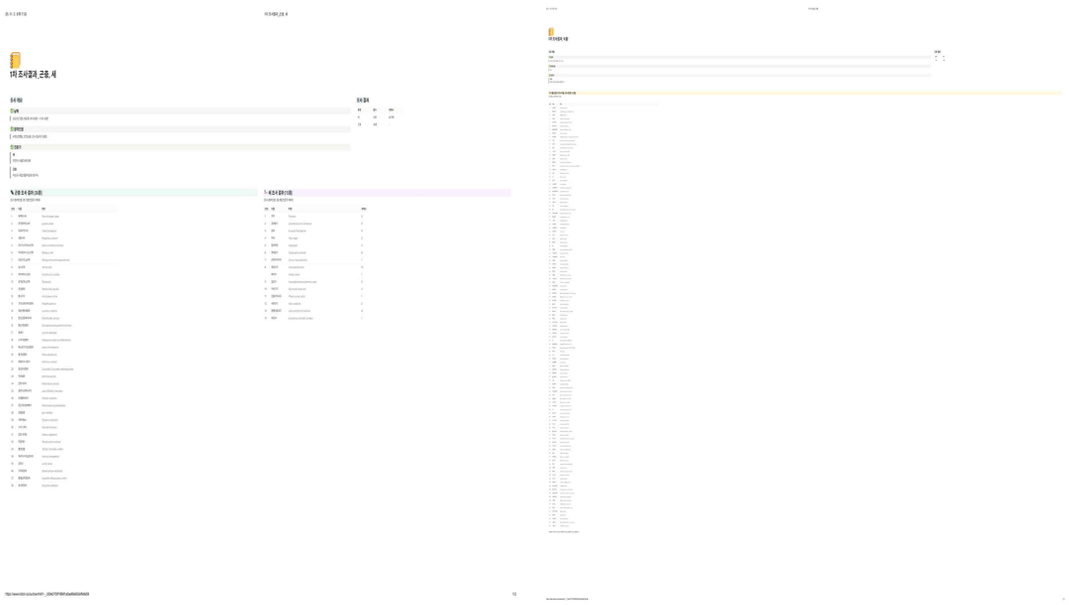
대동천 우안은 지목이 '천', 즉 하천 부지가 쭉 이어지는 데 바로 옆으로 식당이나 카페 등 상업 시설이 들어서 있다. 60년대에 지은 건물도 상당히 있다. 당시에도 대동천 옆으로 등산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가게가 있었던 모양이다.

주택들이 늘어선 대동천 좌안은 4·19민주묘지를 지나 상류 쪽으로 좁은 이면도로가 이어지다가 대동천1교를 지나며 길이 끊긴다. 그 자리에 집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하천 변 바로 옆으로 주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대동천의 흔적은 다리 이름으로 남았다. 대동교, 대동천1교, 대동천2교. 주택가 바로 옆으로 흐르는 대동천 구간은 고수 부지 같은 친수 공간이 따로 없다. 그런 친수 개념이 없을 때 이 일대가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택가가 끝나고 대동천2교를 지나면 북한산 국립공원 둘레길과 등산로가 여러 지점에서 시작된다.

<그림 12> ‘강OO’ 수집기록물 예시

- 마을언덕사회적협동조합, 2025년 9월 4일 수집(4건)
  - 노션으로 관리 중인 생태하천 서식 생물 조사 기록 수집



<그림 13> '마을언덕사회적협동조합' 수집기록물 예시

- 생활환경실천단, 2025년 9월 10일 수집(915건)
  - 안양천, 중랑천, 우이천 등 서울시 하천 정화 활동 관련 기록 수집
  - 생활환경실천단 활동 관련 수상 관련 기록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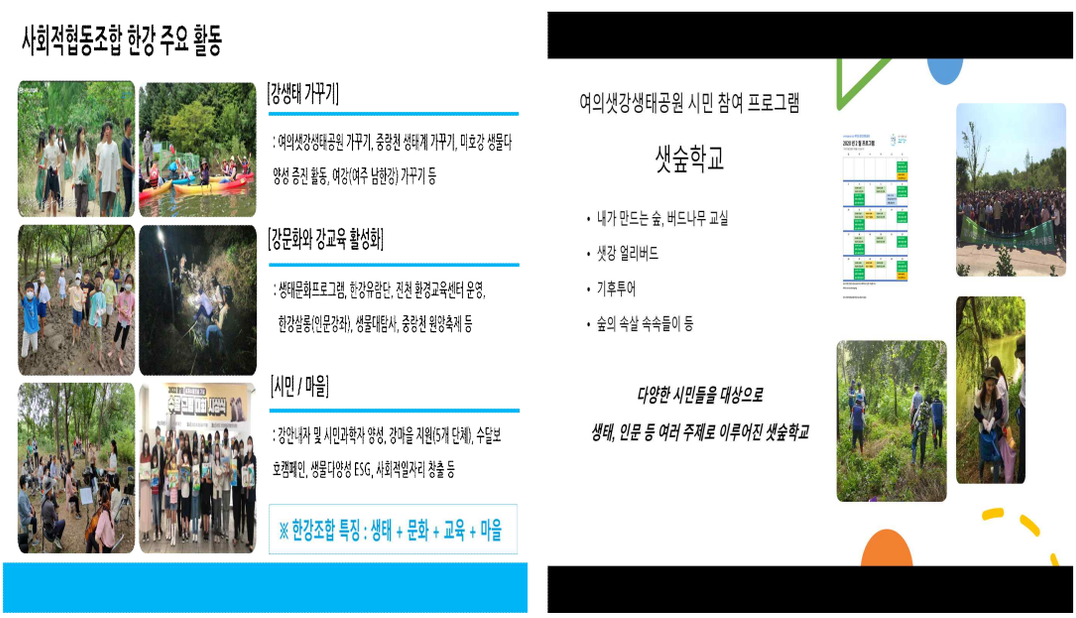
<그림 14> '생활환경실천단' 수집기록물 예시

- 북부환경정의 중랑천사람들, 2025년 9월 29일 수집(50건)
  - 중랑천 인근 주민의 하천 시설물 활용 모습 관련 기록 수집
  - 중랑천의 환경 변천 과정 및 생물 모니터링 관련 기록 수집



<그림 15> '북부환경정의 중랑천사람들' 수집기록물 예시

-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2025년 10월 30일 수집(6건)
  -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소개 자료 수집
  - 신입 활동가 오리엔테이션 자료 수집



<그림 16>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수집기록물 예시

라. 시민 참여형 기록물 수집 프로그램 지원

1) 2025년 기록활동가 양성과정 심화반 수집계획

- 2025년 기록활동가 양성과정 심화반 개요
  - 서울기록원에서 진행한 '기록활동가 양성과정' 수료생을 대상으로 「2025년 서울기록화 사업」과 연계한 심화 교육 운영
  - 서울기록화사업단에서 제시한 수집주제 '청계천'과 수집 방법으로 실습하면서, 필요한 내용을 습득하도록 안내

2) 2025년 기록활동가 양성과정 심화반 운영

- 운영 기간: 2025. 08. 12. ~ 09. 23.
- 교육 대상: 서울기록원 '기록활동가 양성과정' 수료자
- 참여 인원: 총 12명
- 교육 장소: 서울기록원 3층 교육실 및 외부
- 교육 내용: 기록 활동 이론교육, 기록 활동 실습, 활동 공유
- 실습 진행: 3개 조로 나뉘어 각 조에서 '다방', '청계천을 이용하는 시민의 모습', '호프집'을 주제로 기록 활동 실습 진행함. 리드 발굴, 면담조사 및 녹취록 작성, 기록물 수집 등 교육 자료 기반 내용 정리

3) 2025년 기록활동가 양성과정 심화반 수집결과 및 참여자 소감

- 수집결과 및 참여자 소감
  - 2025년 기록활동가 양성과정 심화반 실습 활동 결과 기록물 총 121건 수집
  - 기록활동가 양성과정 심화반 활동을 마무리하는 소감을 조사하기 위해 별도의 소감조사 양식의 작성을 요청하였고, 기록활동가에 대한 정의와 '기록활동가'인 자신의 미래를 질문
  - 참석자는 스스로 생각하는 기록활동가의 정의를 장문의 문장으로 작성하여 진지하게 '기록활동가'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고민의 흔적을 작성
  - '기록활동가'인 자신의 미래에 대한 질문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좋아하는 일에 기록활동을 도전하고, 구술 인터뷰 관련으로 향후 목표를 잘 이루겠다는 포부가 담긴 감상을 작성

2025년 기록활동가 양성과정 심화반 : 청계천의 다방



<그림 17> ‘2025년 기록활동가 양성과정 심화반’ 수집기록물 예시

마. 수집기록 목록화 및 정리

1) 수집기록물 목록 작성

- S-NAP 기반으로 기록을 분류하여 수집기록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수집기록물 목록 작성
  - 관리번호, 영역, 상·하위 S-NAP, 서사 키워드, 원파일명, 제목, 부제목, 생산자, 법적지위, 소장처, 기록유형(일반문서류, 영상음성류, 사진그림류/전자, 비전자), 날짜(생산일), 서술, 기록매체유형, 수집기관유형 등
  - 수집기록물 색인 항목은 아래 표와 같음

No.	항목명	작성내용
1	관리번호	하위 S-NAP명_4자리 숫자
2	영역	S-NAP 주제영역명
3	상위 S-NAP	상위 S-NAP 명
4	하위 S-NAP	하위 S-NAP 명
5	서사 키워드	S-NAP 서사 키워드
6	원파일명	수집 당시 제목

No.	항목명	작성내용
7	제목	수집 정리 후 변경 제목
8	부제목	부제목 존재 시 작성
9	기록계층	철/건/점
10	법적지위	공공기록/비공공기록
11	기록유형	일반문서류/영상음성류/사진그림류
12	전자기록물 여부	전자기록/비전자기록
13	원본사본구분	원본/사본
14	용도구분	수집기록물의 용도
15	생산일	기록물 생산일자
16	언어	수집기록물에 사용된 언어(ISO 3166-1에 따른 국가코드 기재)
17	파일크기	MB단위로 기재
18	재생시간	영상음성류에 한해 전체 재생시간 기재
19	접근유형	공개/부분공개/비공개/미설정
20	보안등급	수집기록물의 보안등급 기재
21	이용유형	제한/제한없음
22	컨테이너 종류	수집기록물의 컨테이너 종류 기재(없을 경우 '없음')
23	저장매체형태	전자기록/비전자기록
24	전자매체형태	수집기록물의 확장자 기재
25	규모	'건' 이상의 경우 하위 단위의 수량 기재
26	전자기록 보존위치	수집기록물의 실제 저장 위치 기재
27	기록매체유형	디지털 자기매체/자기디스크/광매체/반도체 저장매체
28	생산자	기록물 생산자명
29	소장처	기록물 소장 및 관리기관 명칭
30	설명	기록물의 포괄범위와 주요 내용
31	연관기록	기술 단위와 관련된 다른 기술 단위
32	연관정보	기술 단위와 관련된 기관, 인물, 주제, 공간 등 정보

No.	항목명	작성내용
33	웹게시여부	Y/N
34	수집/이관 기관	수집/이관 기관 또는 인물
35	참조번호	민간에서 직접 생산한 기록물, 기존 체계가 없는 경우 미기재하고, 기관이나 조직에서의 이전 관리번호 기재
36	수집기관유형	공공기관/협치기관/민간기관(단체 및 개인)
37	수집유형	기증/위탁/사본수집/구술채록/기록생산
38	비고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특이사항 기재

<표 5> 수집기록물 색인 항목

바. 서울기록원 수집체계 보완

1) 2024년 S-NAP 개정안을 통한 기수집기록물 목록 현행화

- 「2021년 서울기록화 사업」을 통해 2020년 S-NAP을 적용하여 일원화한 2019~2021년 수집기록물 목록 중 2019년 수집기록물 목록에서 오류 발견
- 「2024년 서울기록화 사업」 S-NAP 개선 과업을 통해 갱신된 S-NAP을 적용하여 2019~2024년 기수집기록물 목록 일원화 진행 및 하위 S-NAP 배정하여 현행화 진행

2) 서울기록원 기록수집 매뉴얼 수정·보완

- 2022~2024년「서울기록화 사업」'수집' 과업 분석을 통해 실용적인 시민기록 수집매뉴얼 작성
  - 선행사업에서 수행한 방식, 순서, 방향 등을 분석한「서울기록화 사업 선행사업 '수집' 과업 분석 보고서」작성
  - S-NAP과 연계 등 서울기록원의 특색을 살린 시민기록 수집매뉴얼 작성
- 민간기록물 수집에 관한 법률 및 지침 분석을 통해 전문적인 시민기록 수집매뉴얼 작성
  - 「공공기록물법」,「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등 관련 법률 분석
  -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원 등 민간기록물 수집과 연관된 지침 분석
  - 분석한 법률 및 지침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시민기록 수집매뉴얼 작성
- 과업 분석 기반 실용성 강화

- 2022~2024년 「서울기록화 사업」에서 수행된 수집 과업을 면밀히 분석
- 분석을 통해 「서울기록화 사업 선행사업 '수집' 과업 분석 보고서」 작성
- 기존 선행사업에서 사용한 수집 방식, 순서, 방향을 명확히 정의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민기록 수집매뉴얼 작성
- 기록 수집 절차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절차마다 상세한 설명과 예시를 제공해 매뉴얼의 실용성 강화
- 서울기록 수집 및 정리 과업에 서울기록원 기록활동가 양성과정 교육 지원을
- 추후 「서울기록화 사업」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더라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기록화 사업」을 진행하며 축적된 시민들의 질문사항을 FAQ로 정리

- 법률 및 지침 준수와 전문성 확보
  - 「공공기록물법」과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주요 법률을 준수하고 반영
  - 국가기록원과 서울기록원 등 유관기관의 민간기록물 수집 지침을 분석
  - 매뉴얼의 전문성 강화와 표준화된 기록물 수집 방식을 작성

사. 서사형 아카이브

1) 서사형 아카이브의 목적과 특징

- 서사형 아카이브는 본 사업을 통해 수집된 기록물을 단순히 파편적인 기록이 아닌, 하나로 얽혀진 서사의 일부로써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
- 이를 통해 특정 서사 내에서 수집기록물이 서로 연결되고 유기적으로 통합됨으로써 보다 풍부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표현
- 각 수집리드로부터 수집한 기록물 가운데 핵심이 되는 기록물을 중심으로 그 기록물에 담긴 이야기와 수집리드와의 종합적인 인터뷰 결과 등을 다각적으로 조합하여 의미있는 특정 서사를 제시
- 서사형 아카이브는 다층적인 서사로 구성되어 있어,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며 기록물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 용이

2) 서사형 아카이브 주요 내용

- 2025년 서울기록원은 '청계천', '서울의 생태하천'을 중심으로, 단순히 공간 변화나 현상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하천과 도시를 기록하는

개인 및 단체의 시선과 기록활동을 서사형 아카이브를 통해 포착

- 도시·환경·생태·지역공동체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기록활동가들이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무엇을, 왜, 어떻게 기록해왔는지를 탐구하며 그들의 기록 생산과 보존의 동기를 심층적으로 조명
- 청계천과 서울의 생태하천 기록활동 사례를 통해, 각기 다른 방식의 기록활동 실천이 어떻게 시민기록 생태계를 이뤄냈는지 그 목적과 방법을 서사적으로 재구성
- 서울의 하천을 둘러싼 도시·환경·정동·생태·생활문화가 서로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추적하여, 시민과 공간, 자연과 기록의 관계를 다층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서울의 독특한 기록생태계와 정체성을 표출
- 본 서사형 아카이브는 서울 내 다양한 기록활동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조명함으로써, 도시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기록의 지형을 확장하고 향후 서울기록원의 시민기록 기반을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을 기대


6.3.1 청계천 최인기

"청계천은 어느 곳보다 변화와 역동성이 빠르게 진행되는 곳"
청계천 삶의 현장을 기록하다.

청계천은 사대문 안 서울을 나누는 기준이었다. 청계천을 중심으로 위쪽 지역은 왕궁과 행정기관이 위치해 있고 아래로는 다양한 식당과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었다. 이러한 형태로 현재 '강북'이라고 지칭되는 지역이 개발되었고 현대에는 청계천이 기준이 아닌 한강을 기준으로 강북과 강남을 나눈다.

결국 청계천은 '구도심', '재개발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는 현재 청계천이 서울의 어느 곳보다 변화와 역동성이 빠르게 진행되는 곳으로 만들었다.

최인기님은 바르게 변화하는 청계천의 모습과 삶을 이어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1. 청계고가도로와 삼일아파트

청계고가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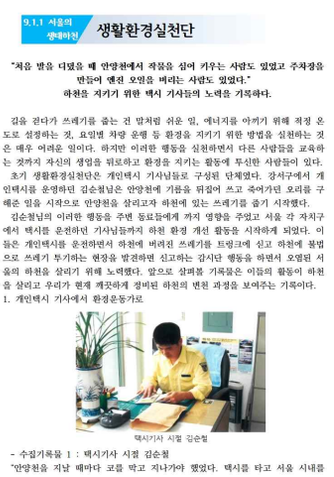
삼일아파트 전경

최인기님이 청계천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한 계기는 2003년 청계천 복원 사업이 진행될 무렵 젊은 시절 그만두었던 사진 활영을 다시 시작했다. 앞으로 소개할 최인기 수집기록물을 살펴보면 그의 인생을 중요 순간을 확인할 수 있다.

- 수집 기록물 1 : 청계고가도로

"서울을 다녀온 친구들이 서울은 차가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말하는걸 저는 허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서울에 상경하고 청계천 고가도로를 보는 순간 차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걸 보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 최인기님 다큐멘터리 내용 중

청계고가도로는 청계천 복개(覆蓋)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다. 기존 개천(開川)이


9.1.1 서울의 생태하천 생활환경실천단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안양천에서 작물을 심어 키우는 사람도 없었고 주차장을 만들어 옛천 오염을 버리는 사람도 없었다."
하천을 지키기 위한 택시 기사들의 노력을 기록하다.

김을 굳다가 쓰레기를 줍는 건 말처럼 쉬운 일,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적정 온도로 설정하는 것, 요일별 차량 운행 등 환경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을 실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까지 자신의 생업을 뒤로하고 환경을 지키는 활동에 투신한 사람들이 있다.

초기 생활환경실천단은 개인택시 기사님들로 구성된 단체였다. 강서구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던 김순철님은 안양천에 가끔을 뒤집어 쓰고 죽어가던 오리를 구해준 일을 시작으로 안양천을 살리고자 하천에 있는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다.

김순철님의 이러한 행동을 주변 동료들에게 까지 영향을 주었고 서울 각 자치구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기사님들까지 하천 환경 개선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들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하천에 버려진 쓰레기를 트렁크에 싣고 하천에 불법으로 쓰레기 투기하는 현장을 발견하면 신고하는 감시단 행동을 하면서 오염된 서울의 하천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 살펴볼 기록물은 이들의 활동이 하천을 살리고 우리가 현재 깨끗하게 정비된 하천의 변천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1. 개인택시 기사에서 환경운동가로

택시기사 시절 김순철

- 수집기록물 1 : 택시기사 시절 김순철
"안양천을 지날 때마다 코를 막고 지나가야 했었다.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를

<그림 18> 서사형 아카이브 예시

2 대시민 서비스용 수집기록 콘텐츠 기획 · 제작

가.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영상 촬영 및 제작

1) 다큐멘터리 아카이브의 목적과 특징

- 물리적 기록 수집으로만은 파악하기 어려운 기록물의 생산 맥락 및 수집 경위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아카이브를 구성하기 위해 지정주제 ‘청계천’을 중심으로 한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제작
- 서울기록 네트워크가 기억하고 또 기록한 청계천의 모습을 다큐멘터리의 형식을 활용하여, 청계천을 기록하게 된 서사와 맥락을 영상 기록물로 생산하는 것이 주된 목표
- 수집된 기록과 다큐멘터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수집리드 중 일부를 대상으로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추진
- S-NAP의 기본 서사와 실제 수집을 통해 형성되는 새로운 서사를 종합하여 구성하고 이를 다큐멘터리 형태로 전달함으로써, 서울의 이야기를 풍부하게 전달하는 서사 중심의 아카이브 진행
- 단순히 자신만의 이유로 청계천의 모습을 기록한 서울기록 네트워크의 시청각기록 아카이브에 그치지 않고, 시청자들에게 서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험을 선사함으로써 감성적으로 기록을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 제공에 기여
- 기존의 15분 내외 영상 1편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짧은 형식의 영상으로 제작, 서울기록 네트워크 4인의 5분 내외 영상 4편으로 분리
- 서울기록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기록활동과 그 서사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획 및 제작

2)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제목	서울을 기록하는 사람들
주제	서울기록 네트워크가 기억하고 또 기록한 청계천의 모습과 기록활동의 소개
감독	홍철민
상영시간	04:59 / 04:57 / 05:08 / 05:34
제작일정	2025.09.03.~11.14.
촬영장소	서울특별시 일대
출연진	최OO (사진가) / 임OO (블로그 운영자) / 박OO (활동가) / 조OO (구가도시건축 대표)

<표 6>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개요

- 기획 의도
  - <2025년 서울기록화 사업> 지정주제 '청계천'을 기반으로, 복원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의 청계천이 시민의 삶 속에서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를 서사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활용
  - 청계천은 서울의 역사적·환경적 공간이자, 일상 속에서 시민과 끊임없이 관계 맺는 도시의 상징적 장소
  - 복원 이후 청계천은 관광명소나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로 조명되어 왔으나, 그 속에서 살아온 상인, 주민, 활동가, 시민기록활동가들의 다층적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조명되지 못함
  -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 '청계천'이라는 공간을 각자의 방식으로 기억하고 기록해 온 시민들의 목소리를 수집하고, 이들이 바라보는 청계천의 현재와 변화상을 아카이빙(복개 전, 복개, 복원 이후 등 시대순 구조)
  - 청계천 주변에서 활동해 온 시민기록활동가들의 활동, 일상의 경험, 공간에 대한 감정을 조명함으로써 도시기록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구체화
  - 서울특별시의 청계천 복원 정책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민에게 어떤 방식으로 자리 잡았는지 탐색하고, 도시공간과 관계를 재조명
  - '청계천'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시민들이 스스로 기록하고 서사화해 온 노력들을 소개하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기억 형성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시놉시스
  - 이 다큐멘터리는 서울기록 네트워크가 각자 경험하고 기억하는 '청계천'의 모습을 기록하게 된 서사를 중심으로 그 의미를 조명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청계천과 기록활동을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로 설명

- 복개 이전 청계천 판자촌 거주 경험이 있고 빈민운동가로 활동하며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활동가 박OO, 청계천 복원 사업 전후로 청계천의 변천 과정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이를 블로그에 업로드하여 기록한 블로그 운영자 임OO, 청계천 복원 사업 시 인근의 경관과 노점상의 철거 반대 운동을 사진으로 기록한 사진가 최OO, 청계천 복원 사업 이후 청계천 인근을 답사하며 골목과 건물을 실측하고 이를 모형으로 제작한 구가도시건축 조OO 대표의 모습을 각각의 영상으로 나누어 담아 서로가 기억하고 기록한 청계천과 기록활동 제공
- 청계천 판자촌에서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당시 주민들의 열악한 삶과 빈민운동의 역사를 후배들에게 전하고자 활동하는 박OO님을 조명. 당시의 생활환경, 주민들의 노동과 생존방식, 그리고 이를 기록으로 남기려는 그의 노력을 따라가며, 잊혀지기 쉬운 서민들의 삶을 기억하는 일이 지닌 가치를 보여줌. 기록을 통해 사라져가는 기억을 복원하고 공동체의 역사로 이어가려는 그의 실천을 통해, 사람과 장소의 기록 활동의 중요성을 표현
- 사라져가는 청계천·황학동·을지로의 풍경을 기록해 온 블로거 임OO님을 조명. 철거와 변화 속에서 빠르게 잊혀지는 장소와 사람들의 추억을 사진으로 남기려는 그의 여정을 따라가며, 기록이 오래된 일상에 다시 생명력을 부여하는 순간들을 포착. 사라지기 전에 남기고자 하는 그의 꾸준한 기록활동을 통해 도시의 기억을 지키는 개인의 역할과 그 의미를 표현
- 청계천 복원 이전의 노점·단속·서민들의 삶을 오랫동안 사진으로 기록해 온 최OO님을 조명. 개발과 철거 속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현장의 현실과 도시 변화의 과정을 사진과 증언을 통해 되짚으며, 기록이 시대의 흔적을 보존하는 방식에 주목. 개인의 꾸준한 기록활동이 도시의 기억을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임을 표현
- 오래된 도시 풍경과 사라져가는 장소를 답사와 모형으로 기록해 온 구가도시건축의 조OO 대표를 조명. 반복된 실측과 현장 관찰을 통해 축적된 그의 기록이 시간이 만든 도시의 의미와 가치를 어떻게 드러내는지 보여줌. 공간의 소멸 앞에서 기록이 공동체의 기억을 이어주는 역할임을 구가도시건축의 작업을 통해 표현



<그림 19> 서울을 기록하는 사람들 '청계천' 다큐멘터리

나. 서울기록원 누리집 서비스용 콘텐츠 기획·편집

1) 서울기록원 누리집 서비스용 콘텐츠 제작 목적

- ‘기록도시 서울’ 시민의 일상과 경험, 이야기를 시민과 공유하고 소통
- 다양한 기록활동을 통해 서울의 오늘을 해석하고 기록함으로써 기록 외연의 확장 도모
- 시민참여와 협력의 ‘기록 거버넌스’를 모색하는 서울기록원의 지향점을 시민과 공유
- 향후 시민기록 활동 교류 및 기록생태계 구축 과정에서 소통의 도구로 활용
- 시민들의 일상적 기록활동을 누리집 콘텐츠로 표현함으로써 서울의 다양한 기록 활동을 보다 개인적이고 현실적인 시민의 관점에서 기록
- 뉴스레터 배포를 통해 서울기록화 사업에서 발굴된 서울기록화 네트워크와의 지속적 접촉 도모

2) 기획 의도

- 서울특별시는 1개의 국가하천(한강)과 21개의 지방하천, 120여 개에 이르는 소하천이 분포하고 있는 대표적인 하천 중심 도시로, ‘물의 도시’라 불릴 만큼 하천과 밀접한 공간구조
- 이러한 지형적·수문학적 특성은 도시의 역사적 형성과 발전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왔으며, 이에 따라 서울은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치수(治水) 사업과 수변 인프라의 구축 및 정비
- 특히 청계천 정비를 비롯한 도시 하천의 복원 및 정비 사업은 서울의 도시계획과 환경정책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형성
- 지정주제인 ‘청계천’에서는 1970년부터 현재까지 청계천을 기록하고 기록한 개인 혹은 단체들의 기록을 통하여 청계천을 중심으로 생활한 사람들의 ‘서울의 생태하천 문화’ 조명
- 자율주제인 ‘서울의 생태하천’에서는 도시개발과 무관심 속에서 사라진 하천의 공동체와 환경 복원을 위해 활동한 개인과 단체들의 기억과 기록을 통해 과거와 현재 달라진 ‘서울의 생태하천 문화’ 조명
- 금년도 수집 주제인 ‘청계천’과 ‘서울의 생태하천’을 관통하는 공통 키워드는 ‘공동체’로 개인의 활동과 기록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의 생태하천 문화’ 설명

3) 콘텐츠 구성

구분	내용
겨울호 (청계천)	서울기록원 인사말
	구가도시건축: 청계천과 을지로, 17년의 기록
	임승한: 시간을 수집하는 사람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청계천을 기록하며 배운 시민의 힘
	최인기: 청계천, 가난과 저항의 기록
	서울기록원 기록활동가 양성과정 심화반 1편: 육의전
	<2025년 서울기록페어> 현장 스케치: 모두의 기록, 우리의 이야기
여름호 (서울의 생태하천)	서울기록원 인사말
	북부환경정의 중랑천사람들: 중랑천, 내 삶의 30%
	한성대학교 아카이빙 프로젝트: 지역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키우다
	강대호: 골목길을 따라, 하천을 따라 서울의 시간을 기록하다
	생활환경실천단: 서울의 하천을 되살린 사람들
	서울기록원 기록활동가 양성과정 심화반 2편: 구술다방

<표 7> 누리집 콘텐츠 및 뉴스레터 개요

4) 콘텐츠 개요

- 조정구(구가도시건축), <청계천과 을지로, 17년의 기록>
  - 구가도시건축 조정구 대표는 2000년부터 '수요답사'를 통해 서울의 골목과 도시 조직 기록
  - 청계천 및 을지로 일대를 17년에 걸쳐 조사하며 근현대 산업 생태계와 공간변화를 입체적으로 기록
  - 건축가의 시선으로 도시의 시간과 기억을 보존하는 사회적 기록 실천의 의미 조명
- 임승한(블로그 운영), <시간을 수집하는 사람>
  - 청계천과 동묘 일대를 중심으로 사라져가는 골목, 정비소, 아파트 등의

풍경을 20여 년간 기록해 온 개인 아카이브 활동가
  - 삼일아파트와 중고차 시장 등 철거 직전의 공간을 직접 촬영하며 사라지는 도시의 구조와 감정을 기록화
  - 개인의 취미로 시작된 기록이 공동의 기억으로 확장되며, 도시 변화의 정서와 시간을 담는 시민기록의 의미 제시
- 안근철(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청계천을 기록하며 배운 시민의 힘>
  - 도시 기록화를 진행해 왔으며, 2019년 청계천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에 참여하여 시민운동과 아카이빙 병행
  - 금속 가공업자들과 협력해 집회를 조직하고 기록물 수집 및 보존 활동을 이어가며, 기록을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실천으로 확장
  - 단순 수집을 넘어 '영구보존'과 '지속 가능한 체계'를 강조하며, 시민기록의 공공화와 연구자 협업의 가능성 제시
- 최인기(사진가), <청계천, 가난과 저항의 기록>
  - 전국노점상협회 수석부위원장이자 사진가로, 30여 년간 청계천과 도시 빈민의 삶을 카메라로 기록해 온 현장 기록활동가
  - 청계천 복원과 재개발 과정에서 노점상과 노동자들의 저항을 사진으로 남기며, 도시 개발 속에서 사라지는 이들의 삶을 증언
  - 사진 기록을 통해 개인의 생애사와 청계천의 변화상을 겹쳐 보이게 하며, 도시 빈민의 저항과 기억을 아우르는 사회적 기록의 의미 제시
- 이정숙(북부환경정의 중랑천사람들), <중랑천, 내 삶의 30%>
  - 20년간 중랑천의 생태 변화를 카메라와 기록지로 남기는 등 시민이 주도하는 장기적 환경 기록의 모범 사례
  - 흰목물떼새 번식 시기를 사진 기록으로 입증해 봄철 준설을 가을로 바꾸는 등, 기록이 정책변화를 이끌 수 있음을 실증
  - 하천의 일상적 변화를 꾸준히 기록함으로써, 환경 보전의 근거이자 세대 간 기억을 잇는 기록의 중요성 제시
- 정경희(한성대학교 아카이빙 프로젝트), <지역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키우다>
  - 이론 중심의 '기록 선별 평가론'을 현장형 '공동체 아카이빙' 수업으로 전환하여, 학생들이 성북천과 주변 마을을 직접 기록할 수 있도록 지도
  - 학생들은 수집 정책과 선별 기준을 스스로 마련하고, 메타데이터 기술 및 오메카 기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까지 수행하며 기록의 체계 체득
  - 지역의 일상적 변화를 세밀히 관찰하고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 기록이 개

인의 시선에서 출발해 공동체의 기억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시각화

- 강대호(도시탐험가), <골목길을 따라, 하천을 따라 서울의 시간을 기록하다>
  - 유년 시절의 기억과 옛 자료를 결합해 서울의 사라진 하천과 골목의 흔적을 글과 사진으로 복원하는 기록활동가
  - 항공사진, 신문기사, 구술 증언 등을 교차 검증하며 도시 개발의 이면과 사라진 공간의 기억을 시민의 시선에서 기록
  - 개인의 탐험과 서사가 결합된 기록을 통해, 도시의 변화를 역사적 층위로 드러내는 시민기록의 확장 가능성 제시
- 생활환경실천단(하천 정화 활동가), <서울의 하천을 되살린 사람들>
  - 1993년 쓰레기 추방 운동에서 출발하여 30여 년간 서울의 하천을 지키며 시민 환경운동의 현장을 기록해 온 단체
  - 불법 소각 감시, 배출가스 단속, 수질 조사 등의 활동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며, 서울의 생태하천 복원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축적
  - 개인의 헌신이 모여 형성된 이 기록들은 환경운동의 역사이자, 다음 세대에 전승될 시민 실천의 증거로서의 의미 제시
- 기록활동가 양성과정 심화반_육의전, <청계천의 흐름을 기록하다>
  - 2025년 서울기록원 기록활동가 양성과정에 참여한 '육의전'조는 청계천의 다리를 중심으로 도시의 역사와 변화 기록 시도
  - 청계천박물관 자료 조사와 학예사 인터뷰, 현장 관찰을 통해 공간의 역사성과 시민의 기억을 함께 아카이빙
  - 기록을 통해 '익숙한 도시'를 새롭게 바라보며, 과거·현재·미래를 잇는 시민기록의 의미 탐구
- 기록활동가 양성과정 심화반_다방, <사라지는 다방의 풍경을 기록하다>
  - 2025년 서울기록원 기록활동가 양성과정에 참여한 '다방'조는 청계천 일대의 다방을 찾아 사장님과 단골손님의 구술을 채록하며, 사라져가는 생활공간의 기억을 기록
  - 인터뷰와 현장 관찰을 통해 다방이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니라 세대와 관계를 잇는 사회적 장소였음을 확인
  - 구술 채록 과정을 통해 일상의 온기와 관계의 기억을 되살리는 시민 아카이빙의 의미 제시
- <2025년 서울기록페어> 현장 스케치, <모두의 기록, 우리의 이야기>
  - <2025년 서울기록페어>는 '청계천과 생태하천'을 주제로 시민기록의 의미와 가능성을 공유한 시민 참여형 기록 축제

- 강연, 시민기록활동가 발표,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록이 전문가의 영역을 넘어 일상 속 시민 실천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조명
- 청계천과 서울의 생태하천을 매개로 시민이 기록의 주체로 참여한 현장을 통해, '기록하는 도시, 함께 쓰는 서울'의 비전 구체화

5) 성과

- 청계천과 서울의 생태하천을 주제로 한 시민 참여형 아카이빙 콘텐츠 11편 제작 및 공개
- 건축가, 사진가, 시민기록활동가, 환경단체, 도시탐험가 등 다양한 주체의 기록 과정을 심층 인터뷰 형식으로 구현함으로써 '서울을 기록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실천을 입체적으로 조명
- 개별 활동의 기록 뿐 아니라, 기록활동가 양성과정 및 서울기록페어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기록의 생산-공유-확산' 구조를 실질적으로 구현
- 본 사업의 결과물은 수집주제와 산업, 공간, 인물, 시민운동 등 다양한 기록주체의 서사를 포괄하며, 향후 서울의 도시·환경·시민기록 연구 및 공공 교육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그림 20> 누리집 콘텐츠 및 뉴스레터 제작 예시

3 <2025년 서울기록페어> 개최

가. 개요

1) 서울기록페어 개최 목적

- 서울기록원의 존재와 목표를 일반 시민에게 알리고 서울 내 기록 활동을 향한 관심을 확산시켜 서울기록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고취 및 시민기록 중심 기획 강화
  - 서울기록화의 핵심인 시민기록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활동 전시·강연·교육을 통합 구성함으로써 시민이 생산한 기록의 가치와 의미를 다각도로 조명
- 기록전문가와 유관기관 종사자, 기록관리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록활동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 다양한 사회층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으로 참여대상 및 세대 확장
  - 어린이·가족·시민기록활동가·일반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층적 프로그램을 통해 기록문화의 사회적 저변 확대
- 강연프로그램은 기록문화 확산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강연, 서울기록원에서 진행한 기록활동가 양성과정 심화반 참가자가 직접 기록수집 활동을 경험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발표, 2025년 서울기록화 사업의 새로운 서울기록 네트워크의 기록활동 소개로 구성
- 교육프로그램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및 운영하여 서울기록원이 지향하는 서울의 기록과 시민의 기억이 만나는 접점의 역할 수행
- 서울기록페어를 통해 시민들과의 상호작용을 강화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기록원'이라는 서울기록원의 정책 비전 실현 노력

2) 서울기록페어 운영 개요

- 행사명: <2025년 서울기록페어: 즐거운 서울, 즐기는 기록>
- 행사일시: 2025년 10월 24일(금)~10월 25일(토) (2일간 진행)
- 행사장소: 서울기록원 (컨퍼런스룸, 교육실, 2층 휴게공간, 1층 안내센터)
- 행사방법: 전 프로그램 오프라인 진행
- 참여대상: 기록전문가, 유관기관 종사자, 기록활동가 및 일반 시민
- 참여신청: 이벤트 관리 플랫폼 '이벤터스' 및 서울시 공공예약서비스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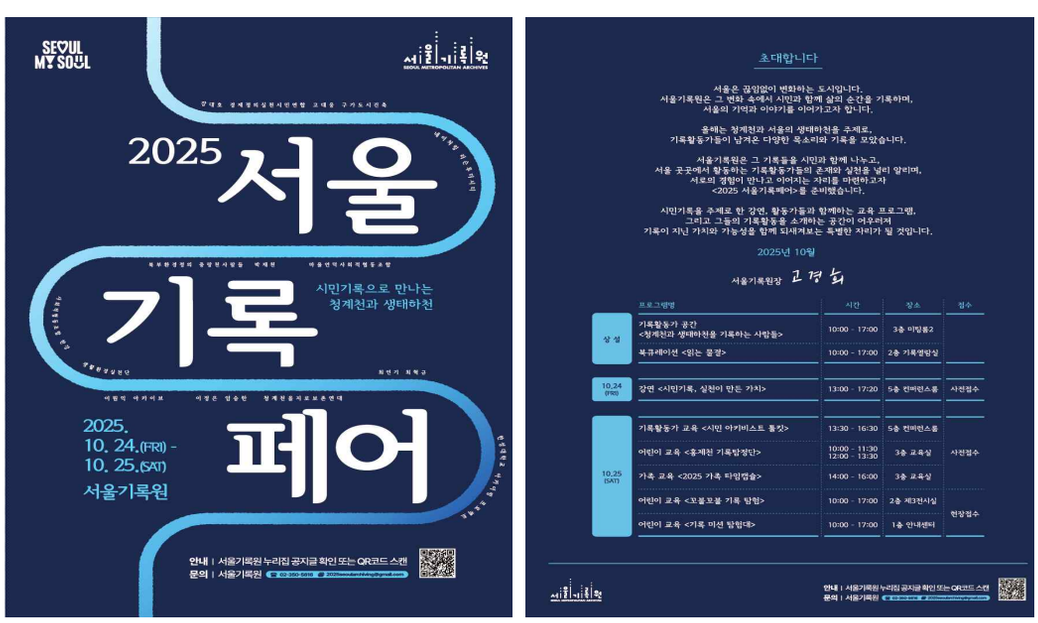
통한 프로그램 사전 참가 신청과 현장 접수

- 주요내용: 기록활동가 공간 <청계천과 생태하천을 기록하는 사람들>, 강연프로그램 <시민기록, 실천이 만든 가치>, 기록활동가 교육 프로그램 <시민 아키비스트 툴킷>,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홍제천 기록탐정단>, 가족 교육 프로그램 <2025 우리 가족 타임캡슐> 등 총 8개 프로그램 운영
- 특기사항
  - 서울기록원 내 타 사업의 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한 행사 진행을 통한 전 연령층의 <서울기록페어> 참여 도모
  - 서울기록 네트워크의 기록활동을 시민들과 다른 시민기록활동가에게 소개하는 내용의 전시 기획 및 1층 안내센터에 설치하여 서울기록원에 방문객에게 공개
  - 시민기록활동가와 서울기록 네트워크를 위한 기록관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접수하여 디지털 아카이브 실습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나. 홍보

1) 서울기록페어 홍보 방향

- 행사 대표 홍보물 및 프로그램 유형별 홍보물 제작
- 서울기록원 및 서울시 보유 온라인 매체, 서울기록화사업단 연계 신문매체를 활용한 홍보 추진 및 초대장 배포



<그림 21> <2025년 서울기록페어> 초대장

2) 서울기록페어 홍보 추진

- 홍보물 제작
  - 포스터, 대형현수막, 켈지, 초대장 등 인쇄 홍보물 및 웹배너, 카드뉴스 등 온라인 홍보물 총 7종 제작

연번	구분	세부사항
1	포스터	메인 포스터
		프로그램 안내 포스터
2	웹배너	서울기록원 누리집 게시용 웹배너
		서울시 행정포털 게시용 웹배너
		이벤터스 게시용 웹배너
3	현수막	옥외 홍보용 대형 현수막
		서울기록페어 안내 현수막
		강연프로그램 안내데스크 현수막
4	X-배너	서울기록페어 안내 X-배너
		프로그램 안내 X-배너
5	켈지	메인 포스터 켈지
6	카드뉴스	서울기록페어 행사 홍보 카드뉴스
		프로그램 홍보 카드뉴스
7	인쇄물	초대장(2면)

<표 8> <2025 서울기록페어> 홍보물 제작 목록

연번	홍보물 상세	설치 위치 및 사진	
1	메인 포스터	• 외부 게시판 • 안내센터 데스크 • 사무동 및 안내센터 엘리베이터 옆 1층 게시판 • 2층 중정 공간	
2	프로그램 안내 포스터		
3	서울기록원 누리집 게시용 웹배너	• 서울기록원 누리집	
4	서울시 행정포털 게시용 웹배너	• 서울시 행정포털	
5	이벤터스 게시용 웹배너	• 이벤터스	

6	옥외 홍보용 대형 현수막	• 서울기록원 외벽	
7	서울기록페어 안내 현수막	• 안내센터 1~2층 난간	
8	강연프로그램 안내데스크 현수막	• 2층 휴게공간 • 5층 컨퍼런스룸 입구	
9	서울기록페어 안내 X-배너	• 5층 컨퍼런스룸 입구 • 2층 휴게공간 • 1층 안내센터 데스크 옆 • 안내센터 입구 • 동선 입구	서울 기록 페어 서울기록페어 서울 기록 페어 서울기록페어 서울 기록 페어 서울기록페어

다. 서울기록페어 전체 프로그램

- 전체 프로그램

연번	프로그램명	일시	장소	내용
1	기록활동가 공간 <청계천과 생태하천을 기록하는 사람들>	상설	1층 안내센터	서울기록 네트워크 기록활동 소개 전시
2	북큐레이션 <읽는 물결>	상설	2층 기록열람실	기록열람실 도서 추천 프로그램
3	강연프로그램 <시민기록, 실천이 만든 가치>	10.24. (금)	5층 컨퍼런스룸	기록전문가 특강 및 서울기록 네트워크 강연
4	기록활동가 교육 <시민 아키비스트 툴킷>	10.25. (토)	5층 컨퍼런스룸	시민기록활동가 대상 디지털 아카이브 실습 교육
5	어린이 교육 <홍제천 기록탐정단>	10.25. (토)	3층 교육실	초등 고학년 대상 기록 교육프로그램
6	가족 교육 <2025 우리 가족 타임캡슐>	10.25. (토)	3층 교육실	초등 저학년 및 보호자 대상 기록 교육프로그램
7	어린이 교육 <꼬불꼬불 기록 탐험>	10.25. (토)	2층 어린이전시실	초등 저학년 및 보호자 대상 체험 교육 프로그램
8	어린이 교육 <기록 미션 탐험대>	10.25. (토)	2층 휴게공간	전연령 대상 미션지 해결 및 체험 교육 프로그램

<표 10> <2025년 서울기록페어> 전체 프로그램 목록

1) 기록활동가 공간 <청계천과 생태하천을 기록하는 사람들>

- 일시: 2025년 10월 24일(금)~10월 25일(토) 10:00~17:00
- 장소: 서울기록원 안내센터(1층)
- 내용: 서울기록 네트워크를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전시
- 전시 참여 서울기록 네트워크
  -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 최OO(사진가)
  - 임OO(블로그 운영자)
  - 최OO(연구자)
  - 고OO(예술가)
  - 구가도시건축

- 리슨투더시티
- 박OO(활동가)
- 이OO(연구자)
- 북부환경정의 중랑천사람들
- 마을언덕사회적협동조합
- 강OO(칼럼니스트)
- 생활환경실천단
-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 한성대학교 아카이빙 프로젝트
- 이원익 아카이브



<그림 22> 기록활동가 공간 <청계천과 생태하천을 기록하는 사람들> 설치 사진

- 기록활동가 공간 구성 - 소개글
  - 시작하는 입구에 '서울기록화 사업'의 취지를 전달하여 기록활동가 공간의 목적과 방향을 명확히 안내할 수 있는 소개글 작성



<그림 23> 기록활동가 공간 구성 - 소개글

- 기록활동가 공간 구성 – 기록활동가 사진
  - 지정주제 ‘청계천’ 및 자율주제 ‘서울의 생태하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록활동가와 단체의 대표 사진을 중심 요소로 배치하고, 노출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면담 인터뷰에서 선정한 대표 문장을 활용해 기록활동가를 한 문장으로 소개



<그림 24> 기록활동가 공간 구성 – 기록활동가 사진

- 기록활동가 공간 구성 – 수집 기록물
  - 각 기록활동가가 이번 공간을 위해 제공한 대표 기록물을 구성하여, ‘청계천’과 ‘서울의 생태하천’이라는 동일한 주제에서도 다양한 기록이 생산되고 있음을 직관적으로 전시



<그림 25> 기록활동가 공간 구성 – 수집 기록물

- 기록활동가 공간 구성 – 아카이빙 북·기록서 전시
  - 이전 서울기록화 사업의 결과물인 아카이빙 북과 기록활동가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기록 관련 저서를 함께 배치하여, 지금까지 쌓아온 서울기록화와 기록활동가들의 다양한 기록 생산 및 관리 방법을 시민에게 공유



<그림 26> 기록활동가 공간 구성 - 아카이빙 북·기록서 전시

- 성과 및 의의
  - 기록활동가 중심의 공간을 별도 구성하여 서울기록화 네트워크를 시민에게 직접 소개한 첫 사례로, 서울기록화 사업의 핵심 구조와 참여 주체를 명확히 전달
  - 2025년 수집 기록의 대표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시민기록 기반 아카이브의 활용 가치와 확장 가능성 확인
  - 아카이빙 북과 다큐멘터리 영상 등 기존 제작 콘텐츠와 연계하여 서울기록화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기록활동 주체들과 구축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협력 성과 가시화
  - 서울기록페어 방문객에게 서울기록화 네트워크의 활동과 기록 과정을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향후 콘텐츠 확장 및 협력 기반 마련

2) 북큐레이션 <읽는 물결>

- 일시: 2025년 10월 24일(금)~10월 25일(토) 10:00~17:00
- 장소: 서울기록원 기록열람실(2층)
- 내용: 서울기록원 기록열람실 도서 추천 프로그램



<그림 27> 북큐레이션 <읽는 물결> 사진

3) 강연프로그램 <시민기록, 실천이 만든 가치>

- 일시: 2025년 10월 24일(금) 13:00~17:00
- 장소: 서울기록원 컨퍼런스룸(5층)
- 강연 리스트
  - 시민기록의 힘: 함께 기록하고, 성장하는 공동체 _ 김하나(시민기록네트워크)
  - 시민들이 수집한 청계천의 기록 _ 2025년 서울기록원 기록활동가 양성과정 심화반
  - 수동적 기록을 너머: 기록과 데이터를 통한 페미니스트 도시 계획 _ 박은선(리슨투더시티)
  - 나만의 도시사(都市史)를 쓰다 _ 강대호(칼럼니스트)
- 강연프로그램 <시민기록, 실천이 만든 가치> 일정표

구분	시간	강연자명	내용
축사	13:10~13:20	서울기록원장	축사
기록전문가 특강	13:20~14:10	김하나(시민기록네트워크)	시민기록의 힘: 함께 기록하고, 성장하는 공동체
서울기록화 네트워크 강연	14:25~15:40	기록활동가 양성과정 심화반	청계천의 다방 / 청계천 육의전
	15:55~16:25	박은선(리슨투더시티)	수동적 기록을 너머: 기록과 데이터를 통한 페미니스트 도시 계획
폐회	16:40~17:10	강대호(칼럼니스트)	나만의 도시사(都市史)를 쓰다
	17:10~17:20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장	기념품 추첨 및 폐회

<표 11> 강연프로그램 <시민기록, 실천이 만든 가치> 일정표

- 김하나(시민기록네트워크) - 시민기록의 힘: 함께 기록하고, 성장하는 공동체
  - 시민기록의 가치와 의미를 조명하고, 활동 과정에서 마주한 현실적 어려움을 시민들과 공유하여 향후 시민기록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

한 방안을 제안하는 강연



<그림 28> 김하나(시민기록네트워크) 강연 사진

- 2025년 서울기록원 기록활동가 양성과정 심화반 - 시민들이 수집한 서울의 기록
  - 청계천이라는 수집주제에 대한 고민과 활동 방향, 청계천의 다방과 청계천을 이용하는 시민, 청계천박물관의 주무관을 인터뷰하여 시민기록활동가로서 활동하며 겪은 에피소드와 소감 등 강연



<그림 29> 기록활동가 양성과정 심화반(청계천의 다방(좌), 청계천 육의전(우)) 강연 사진

- 박은선(리슨투더시티) - 수동적 기록을 너머: 기록과 데이터를 통한 페미니스트 도시 계획
  - 리슨투더시티의 단체에서 활동하며 겪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재개발 및 철거를 겪은 도시의 소외된 계층을 위한 데이터 구축과 기록관리의 필요성, 기록이 왜 어려운지 청계천-을지로 구역, 내성천, 옥바라지골목 등 실제 사례를 통한 경험 공유 강연



<그림 30> 박은선(리슨투더시티) 강연 사진

- 강대호(칼럼니스트) - 나만의 도시사(都市史)를 쓰다
  - 살아가면서 고향이 어디인지, 내가 살아가는 동네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 개인의 방법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여 도시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고 자신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경험을 공유하는 강연



<그림 31> 강대호(칼럼니스트) 강연 사진

4) 기록활동가 교육 <시민 아키비스트 툴킷>

- 일시: 2025년 10월 25일(토) 13:30~16:30
- 장소: 서울기록원 컨퍼런스룸(5층)
- 내용: 시민기록활동가 대상 디지털 아카이브 실습 교육
- 안대진(아카이브랩) - 시민 아키비스트 툴킷
  - 디지털 아카이빙의 최신 트렌드와 실제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구독형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오메카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직접 실습해보는 시간

을 가지고 다양한 기록 도구와 서비스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평소 기록관리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는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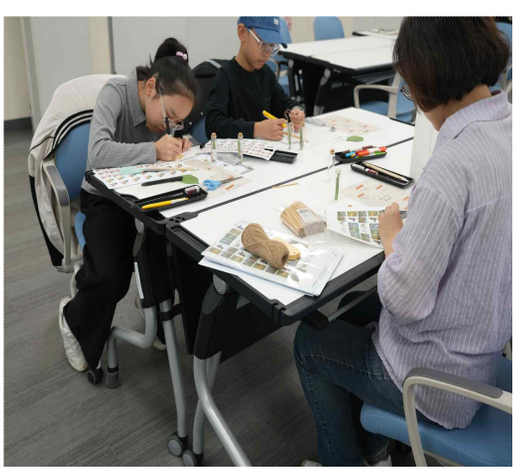



<그림 32> 기록활동가 교육 <시민 아키비스트 툴킷> 진행 사진

- 성과 의의
  - 면담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요청받았던 서울기록 네트워크 및 시민을 위한 실습 교육의 진행
  - 서울기록 네트워크 대상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의 기회 마련

5) 어린이 교육 <홍제천 기록탐정단>

- 일시: 2025년 10월 25일(토) 10:00~11:30 / 12:00~13:30 (총 2회 진행)
- 장소: 서울기록원 교육실(3층)
- 내용: 초등 고학년 대상 홍제천 관련 기록 확인 및 미래 세대를 위한 타임캡슐 제작

<그림 33>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홍제천 기록탐정단> 진행 사진

6) 가족 교육 <2025 우리 가족 타임캡슐>

- 일시: 2025년 10월 25일(토) 14:00~16:00
- 장소: 서울기록원 교육실(3층)
- 내용: 초등 저학년 및 보호자 대상 서울기록원 내부 탐사 및 당일 하루에 대한 타임캡슐 제작



<그림 34> 가족 교육 <2025 우리 가족 타임캡슐> 진행 사진

7) 어린이 교육 <꼬불꼬불 기록 탐험>

- 일시: 2025년 10월 26일(토) 10:00~17:00 (휴게시간: 11:30~13:30)
- 장소: 서울기록원 어린이 기록체험실(2층)
- 내용: 기록을 주제로 한 어린이 놀이형 체험 전시



<그림 35>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꼬불꼬불 기록 탐험> 진행 사진

8) 어린이 교육 <기록 미션 탐험대>

- 일시: 2025년 10월 25일(토) 10:00~17:00
- 장소: 서울기록원 휴게공간(2층)
- 내용: 전연령령 대상 서울기록원과 관련된 미션지를 해결하고 기념품으로 종이카메라 제작



<그림 36>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기록 미션 탐험대> 진행 사진

라. 기념품 제작 및 배포

- 제작 목적: 프로그램 참여자 등에 대한 답례용 기념품 제작 및 배포
- 기념품 종류: 캔버스 에코백, 강연자료집, 펜, 보조배터리 등 총 4종
- 선정 기준: 실용성 및 친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기념품 품목 선정
  - 캔버스 에코백: 내구성이 높고 실용성이 높은 캔버스 에코백을 제공하여 일회용 쇼핑백을 대체하고, 기록을 강조한 활용한 로고 디자인을 구현하여 서울기록원과 <2025년 서울기록페어>의 홍보 효과 창출
  - 펜, 보조배터리: 서울기록원의 브랜드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는 문구를 활용한 타이포그래피 디자인 및 서울기록원 로고를 활용한 디자인을 구현하여 서울기록원의 홍보 효과 창출
- 기념품 배포
  - 강연프로그램 <시민기록, 실천이 만든 가치>: 캔버스 에코백, 강연자료집, 펜
  - 기록활동가 교육 <시민 아키비스트 툴킷>: 캔버스 에코백, 펜, 보조배터리

강연자료집	캔버스 에코백
	
펜	**보조배터리**
	

<표 12> <2025년 서울기록페어> 기념품

마. <2025년 서울기록페어> 성과

1) 서울기록페어 결과

- 이전 서울기록페어의 설문 결과 및 시민기록활동가로부터의 수요 요청이 있던 실습 프로그램에 대해 디지털 아카이브 실습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시민의 의견 반영 및 진행
-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냈으며 서울기록페어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연례행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2025년 서울기록페어> 참여 인원(총 338명)
  - 기록활동가 공간 프로그램 <청계천과 생태하천을 기록하는 사람들>: 156명
  - 북큐레이션 <읽는 물결>: 47명
  - 강연프로그램 <시민기록, 실천이 만든 가치>: 54명
  - 기록활동가 교육 프로그램 <시민 아키비스트 툴킷>: 20명
  -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홍제천 기록탐정단>: 2명
  - 가족 교육 프로그램 <2025 우리 가족 타임캡슐>: 17명
  -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꼬불꼬불 기록 탐험>: 24명
  -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기록 미션 탐험대>: 18명
- <2025년 서울기록페어> 설문조사 대상인 강연프로그램 <시민기록, 실천이 만든 가치>, 기록활동가 교육 <시민 아키비스트 툴킷>, 어린이 교육 <홍제천 기록탐정단>, 가족 교육 <2025 우리 가족 타임캡슐> 참여자 총 93명 중 56명(응답률 약 60%)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에 응답
- <2025년 서울기록페어> 설문지 3종 제작
  - 강연프로그램 <시민기록, 실천이 만든 가치>, 기록활동가 교육 프로그램 <시민 아키비스트 툴킷>, 가족 교육 프로그램 <2025 우리 가족 타임캡슐> 참여자 대상 설문지(이하 '행사 설문조사용 설문지')
  -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홍제천 기록탐정단>, 가족 교육 프로그램 <2025 우리 가족 타임캡슐> 어린이 참여자 대상 설문지(이하 '어린이용 설문지')
  - 가족 교육 프로그램 <2025 우리 가족 타임캡슐>은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므로, 어린이와 보호자를 위한 설문조지 별도 마련
- 행사 설문조사용 설문지의 설문조사 결과
  - 행사 참여자 가운데 여성, 기록관리 관련 연구자·종사자 등과 30~40대의

참여율이 높음

- 기록에 관한 관심과 강연프로그램 주제(시민기록 및 민간(개인) 기록관리 방법)에 관한 관심이 행사 참여의 목적
-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참여자의 비율이 높으나, 강원, 전라, 충청 등 전국에서 참여하는 모습 확인
- '참여 및 홍보 공문을 통해'와 '초청장, 행사 포스터·리플렛 등 홍보물을 통해'를 통해 <2025년 서울기록페어>를 인지하는 경우가 높은 편이나 '주변 사람의 권유를 통해' 및 '신문 등 언론 및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인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므로 다양한 홍보 방법의 적극적 활용 필요
- <2025년 서울기록페어> 프로그램 중 강연프로그램 <시민기록, 실천이 만든 가치>, 기록활동가 교육 프로그램 <시민 아키비스트 툴킷>의 참석률 및 만족도가 가장 높음
- '기록활동가 공간 <청계천과 생태하천을 기록하는 사람들>', '북큐레이션 <읽는 물결>',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꼬불꼬불 기록 탐험>',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기록 미션 탐험대>' 프로그램은 참여자에게 별도의 설문지 작성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프로그램 참여자의 답변을 통해 함께 참여했음을 확인 가능
- <2025년 서울기록페어>에 대해 참여자 대부분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향후 '서울의 기록활동을 소개하는 민간 기록활동가의 세션', '타 아카이브(유관기관 포함)에서 종사하는 실무자의 강연' 등의 강연프로그램 구성 및 '실무 고민 나누는 네트워킹 프로그램', '실전에 해볼수 있는 기록방법 체험해보기' 등의 교육·체험 프로그램 구성 희망
- 향후 서울기록원의 <서울기록페어>를 통해 '기록학 비전공자이면서 기록(메모, 일기, 아카이브 운영 등)에 진심인 유명인들의 경험, 사례 강연', '시민기록활동가에게 필요한 실무적인 부분을 알려줄수 있는 시민기록활동가의 강연', '기업의 역사 기록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강연' 등의 프로그램이 기획되기를 희망

● 어린이용 설문지의 설문조사 결과

- 초등 1학년 학생의 참여율이 가장 높으며 성비는 여성의 비율이 높음
- 대다수가 교육이 즐거웠고 강사 선생님의 설명이 알기 쉬웠다고 답변
- 대다수가 '타임캡슐 상자 만들기'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은 활동이었다고 답변
- 서울기록원에서 진행하는 다른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싶다는 대답이 대다

수였으며, 재밌다는 소감이 대다수였음을 확인 가능

- 향후 참여하고 싶은 활동으로 ‘홍제천이 아닌 다른 강’, ‘나만의 책 쓰기’, ‘다양한 만들기나 놀이 체험’, ‘계단 가위바위보’ 등 만들기 및 놀이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희망

- <2025년 서울기록페어> 설문조사의 결과와 종합의견을 통해 참여자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
- 설문조사의 결과와 종합의견을 통해 향후 서울기록페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대한 서울기록원의 추진 방향 설계 필요
- 지난 <2024년 서울기록페어>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타 아카이브(유관기관 포함)에서 종사하는 실무자의 강연’, ‘서울의 기록활동을 소개하는 민간 기록활동가의 세션’에 집중하여 강연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5년 서울기록페어>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음을 확인
- 설문조사 결과 짧은 강연 시간에 비해 쉬는 시간이 길고 잦다는 평이 있어, 추후 <서울기록페어>에서는 강연의 밀도를 조정하여 강연 시간과 쉬는 시간의 배분에 주의를 기울이는 기획 및 구성 방안 마련 필요
- ‘기록활동가 공간 <청계천과 생태하천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통해 서울기록원이 서울기록 네트워크를 소개하고 기록활동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프로그램 기획 및 호평
- ‘기록활동가 교육 프로그램 <시민 아키비스트 툴킷>’ 직접 시민이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실습 교육에 대한 만족도 향상
- 지난 <2024년 서울기록페어>와 이번 <2025년 서울기록페어>에서 어린이 교육 및 가족 교육 프로그램의 예약 현황을 통해 사전신청 플랫폼 ‘이벤터스’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에서의 예약 현황 차이가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어 추후 <서울기록페어>에서 어린이 및 가족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지속하여 진행하기 위해 사전예약 플랫폼을 하나로 확정하는 안정적인 예약 운영 필요
- 지난 <2024년 서울기록페어>와 이번 <2025년 서울기록페어>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설문조사 의견이 제시되었고, 실제 <2025년 서울기록페어>의 짧은 홍보 기간을 고려하여 추후 <서울기록페어>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방안 마련 필요

- 서울기록원은 향후 서울기록페어의 지속적 개최와 성공적 운영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 기획 및 구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참여자의 높은 만족도를 보인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과 더불어 ‘서울의 기록활동을 소개하는 민간 기록활동가의 강연’, ‘타 아카이브(유관기관 포함)에서 종사하는 실무자의 강연’ 등의 강연프로그램 및 다양한 만들기 및 놀이 구성의 교육·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참여자의 요구사항 및 개선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행사 추진 기대

Ⅲ.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

1. 『2025년 서울기록화 사업』 성과

2. 향후 서울기록화 추진 방향

1 『2025년 서울기록화 사업』 성과

1) 서울 서사형 기록화 지침(S-NAP)의 현행화

- 2019년「서울기록 수집 및 기록콘텐츠 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S-NAP은 2020년「서울기록화 사업」에서 S-NAP 보통명사화, S-NAP 재구조화, S-NAP 서사 보완 등의 정비 진행 후 2024년「서울기록화 사업」을 통해 '서울을 재현한다'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면서 직관적인 S-NAP으로 개선
- 2024년「서울기록화 사업」에서 정비한 2019~2024년 기수집기록물 목록에 2024년 S-NAP을 적용하여 수집기록물 목록의 일관성 확보 및 현행화 진행

2) 서울기록 네트워크와 서울기록원을 연결하는 누리집 콘텐츠

- 아카이빙 북 콘텐츠와 2024년의 누리집 콘텐츠를 결합하여 기존의 서울기록원 누리집 인터뷰 콘텐츠를 뉴스레터 형식을 통해 서울기록 네트워크에게 발송 계획 수립
- 서울기록원 누리집에 업로드하는 아카이빙 북 콘텐츠를 서울기록원 누리집에 아카이빙 북의 인터뷰 형식을 온라인 콘텐츠로 전환
- 새롭게 뉴스레터를 제작하여 아카이빙 북의 온라인 인터뷰 콘텐츠와 기존 다큐멘터리 영상 링크, 서울기록페어 현장 스케치 등을 서울기록화 네트워크에게 발송하여 기록활동 소개 및 서울기록화 성과 공유
- 대시민 서비스용 누리집 콘텐츠를 통해 서울기록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증가 및 서울기록원 누리집과 온라인 콘텐츠의 접근성 향상

3) 이전 설문조사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2025년 서울기록페어> 운영

- 금년 사업으로 6회차를 맞이한 <서울기록페어>는 2025년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총 2일간 개최
- 10월 25일에 운영된 총 5개의 교육프로그램은 상시 운영과 개별 운영으로 구분하여 행사 참여자들에게 같은 날 여러 가지 프로그램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2025년 서울기록페어>에서는 서울기록화 사업을 진행하며 구축한 서

울기록 네트워크의 기록활동을 소개하는 내용의 전시를 기획하고 이를 1층 안내센터에 상시 개방하여 방문객에게 청계천과 서울의 생태하천 네트워크 소개

- 어린이 교육 <홍제천 기록탐정단>과 가족 교육 <2025 우리 가족 타임캡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전용 설문지 작성을 통해 프로그램 만족도 및 향후 서울기록원에 바라는 프로그램 구성 조사
- <2025년 서울기록페어>에서 전 연령 대상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하여 가족 구성원이 함께 그리고 따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서울기록원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 및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
- 기록활동가 교육 <시민 아키비스트 툴킷> 프로그램을 기획 및 진행함으로써 이전부터 요청이 있었던 시민기록활동가 대상 실습 교육 프로그램을 <2025년 서울기록페어>에서 제공
- 기록활동가 공간 및 교육을 통하여 서울기록원이 대표하는 기록문화행사로서의 <서울기록페어>를 강조하며, 서울기록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시민들이 경험할 수 있는 계기 마련

2 향후 서울기록화 추진 방향

1) 서울기록 수집 관련 제안 사항

- 서울기록원 홍보 필요
  - 수집 리드 발굴 및 면담 조사 간 서울기록원에 대해 처음 들어보는 기관 및 개인이 다수 존재하며, 서울기록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높은 관심도 표현
  - 발굴된 서울기록 네트워크의 경우 서울기록원과 지속적 연계를 원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뉴스레터' 발송을 통한 서울기록 네트워크와의 네트워크 관계 강화
- 시민기록활동가 양성과정 교육 지원의 확대
  -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수집을 진행하는 것은 서울기록 생태계를 구축하고자하는 서울기록화 사업의 취지와 일치
  - 기록활동가 양성과정을 서울기록화 사업 전에 미리 실시하여 인원을 확보한 후 수집주제 선정부터 사업단과 같이 상의하며 진행하는 것을 제안
  - S-NAP의 각 주제영역을 모두 연차별로 수집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하여 수집을 진행한다면 S-NAP의 풍부화 가능
  - 수집주제가 방대할 시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점을 명확히 드러내는 등 수집 활동의 범위를 좁히고 대상을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
  - 기록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서울기록페어> 강연 초대 가능
  - 기록활동가들과의 원활한 협업을 위한 '컨트롤타워' 필요
- 기록물 목록을 통한 SDA 업로드 및 기록계층 설정 필요
  - 현재 SDA의 경우 철, 건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건'을 기준으로 한 수집과 목록화가 추후 SDA 업로드 시 용이할 것으로 판단
  - 시민기록의 특성상 컬렉션 및 시리즈 계층에 대한 설정 필요
  - 컬렉션 계층 설정을 통해 추후 시민기록 전시 기대

2) 대시민 기록 콘텐츠 기획·제작 관련 제안 사항

- 수집팀과 콘텐츠 제작팀의 통합 운영 필요
  - 리드 발굴은 당해 수집주제와 관련된 개인 및 단체가 대상이므로 수집활동의 리드 탐색과 같은 과정의 중복 수행 가능성 존재
  - 콘텐츠 대상들이 수집 리드와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구분하는 것은

실제 리드와 접촉하여 면담을 진행하기 전까지는 불분명
  - 따라서 수집팀과 콘텐츠 제작팀을 별도로 구분하는 것보다 같은 팀으로 조직하는 것이 원활한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될 것
- 서울기록원과의 원활한 소통
  - 콘텐츠 제작자-사업단-서울기록원 3단 구조로 진행되어 작업을 위한 소통 구조가 복잡
  - 기획 단계에서부터 서울기록화 사업 담당자와 콘텐츠 제작자와의 직접 소통을 통해 방향성을 잡고 제작하여 소통 구조의 간소화 제안

3) <서울기록페어> 개최 관련 제안 사항

- 충분한 홍보 기간에 대한 대비 필요
  - 홍보물 수정 및 제작 완료 일정 지연으로 인해 충분한 홍보 기간을 확보하지 못해 '강연프로그램 <시민기록, 실천이 만든 가치>' 및 '어린이 교육 <홍제천 기록탐정단>'에 대한 참석 인원 저조
  - 홍보물 디자인 기획을 예년보다 이르게 시작하여 충분한 홍보물 디자인 수정 및 홍보 기간 확보 필요
- 강연프로그램 시간 축소
  - 오전부터 시작하여 저녁 무렵 끝나는 강연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이 오래 앉아 있기 어려울뿐더러 피로감을 줄 우려가 있음
  - 기록전문가 강연, 서울기록원 기록활동가 양성과정 심화반 참석자 발표, 서울기록 네트워크 강연 등 최대 4가지의 강연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시간의 축소 진행 제안
  - 각 강연당 15분의 쉬는 시간은 너무 많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
  - 30분의 짧은 강연인 경우 강연 주제 및 내용에 따라 쉬는 시간 없이 연속적으로 강연 진행 여부 검토
- 프로그램의 다양화
  - 금년 <서울기록페어>에서 전시와 디지털 아카이브 실습수업 관련 호평 및 설문조사 결과 실습수업과 기관 실무자의 강연을 희망하는 의견 다수 접수
  - 서울기록 네트워크와의 교류 증대 및 희망하는 실습수업, 교육 등 의견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기획 필요
  - 서울기록 네트워크를 소개하는 내용의 전시에서 추가하여 어떤 기록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 전시 규모 및 기록활동 내용의 추가 제안

2025년 서울기록화 사업
결과 보고서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고경희 서울기록원장

발행처 서울특별시

발행일 2025.11.

archives.seoul.go.kr

제작부서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제작총괄 손지황 기록정책과장
제작담당 고미정 학예연구사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2길 7
전화 02-350-5600

편집 및 디자인 투에이 주식회사
인쇄 미스터카드앤카피㈜

© 2025. 서울기록원
본 제작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판매가격 비매품

발간등록번호 51-6110000-003352-10

ISBN 979-11-7177-539-2 (93020)

비매품/무료
93020
9 791171 775392
ISBN 979-11-7177-539-2